

01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January 2025
vol. 280

Art+Culture issue





 A LASH 2025

 LOUIS VUITTON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28

CHA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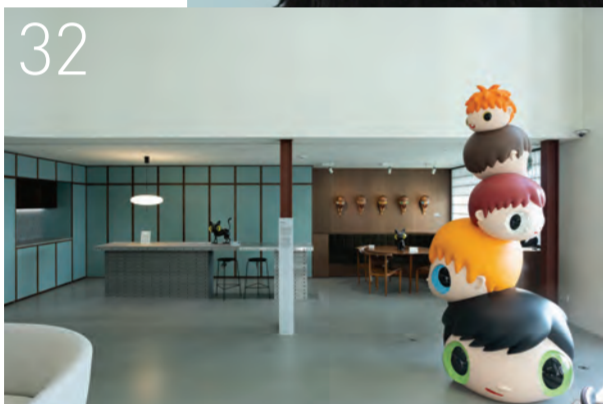
FINE JEWELRY

COCO CRUSH

SOME ENCOUNTERS YOU WEAR FOREVER.
RINGS AND NEW BRACELETS IN BEIGE GOLD, WHITE GOLD AND DIAMONDS.

Contents

- 07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08 **허우현도상(虛宇懸圖上)**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펼쳐지는 이강소 개인전 <풍래수먼시>(2024. 11. 1~2025. 4. 13)는 생명감을 불러일으키는 기운(氣韻)이 공간을 수놓고 있다.
- 11 **SELECTION** 매서운 겨울 바람에도 스타일 리시함을 배가해줄 아웃도어 룩을 제안한다.
- 12 **GET THE LIST**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당신을 응원하는 여덟 가지 특별한 셀렉션.
- 14 **THE LEGENDARY JOURNEY** 미국 스타일을 정의해온 패션 디자이너 랄프 로렌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베리 랄프(Very Ralph)>의 스크리닝 이벤트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다.
- 16 **NEW LANDMARK** 창담동에 문을 연 새로운 랜드마크, 셀남 플래그십.
- 17 **BEYOND THE TOP** 테크노이어가 2025년 한국 지사를 론칭한다. APAC(Asia-Pacific) 매니징 디렉터 브리스 차를리에게서 듣는 한국 지사 시장 전략.
- 18 **THE DAZLER** 매력적인 그녀, 주얼리 포트리테.
- 28 **거장의 예술 작품, '공간'으로 거듭나다** 밀라노 외곽의 피렐리 안가리비코카(Pirelli HangarBicocca)는 단층 건물과 현대미술이 조화를 이루는 비영리 아트 스페이스다.



32

18



2015년 처음 선보인 파플 백은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과 최고급 소재, 장인 정신이 결합된 백이다. 가죽 조각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는 큐빅 형태의 미니멀한 디자인은 로에베의 아이콘이다. 또 부드러운 촉감과 납작하게 접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로에베의 숙련된 장인 정신과 디자인 혁신을 결합해 현대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패턴을 창조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문의 02-3479-1785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Style 조선일보

대표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성경민 sjm@chosun.com 에디터 윤자경 yjk@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신정임 sj@chosun.com
디자인 나킴퍼니 교별 이정현 수정 박민정 광고·마케팅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h5567@chosun.com
유희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해·재판 덕일 인쇄 타라피에스
기사 및 광고 문의 02-749-5665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라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35



27

- 30 **예술가들의 전설적인 놀이공원 '루나 루나'의 부활** 무려 37년 만에 미국 뉴욕의 복합 문화 공간 더 셰드(The Shed)에 등장한, 과거 실재했던 루나 루나(Luna Luna) 이야기.
- 32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취향의 발견'** 지난 11월 나란히 막을 올린 다뮤지엄의 <취향가족: Art in Life, Life in Art>와 김리아갤러리의 <Toi Toi Toilette>전은 매일 마주하면서 쉽게 지나치는 공간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 34 **'즐거움 연결'을 꿈꾸는 뉴 렉서리 아만(Aman)의 자매 브랜드로 전혀 다른 콘셉트와 분위기를 추구하는 자누 계열의 1호 호텔, 자누 도쿄(Janu Tokyo)의 색다른 매력.**
- 35 **'빛 없이 있던 것'** '홀'이라는 물성으로, 그리고 이와 상징적으로 연결되는 존재의 근원에 가까이하고자 자연과 우주 같은 주제를 탐구해 왔다는 공통분모를 지닌 3인의 작가 이은영, 오다고, 박예림의 작품 세계.
- 42 **우리는 열린 회로**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역대급을 표방하는 백남준 회고전인 <백남준, 백남준, 그리고 백남준>展(2024. 11. 30~2025. 3. 16)이 펼쳐지고 있다.
- 44 **빌 비올라, 새로운 게임의 규칙** 비디오아트 창시자 백남준과 그의 수제자로 꼽히는 빌 비올라(Bill Viola)의 전시가 현재 한국에서 동시에 열려 의미를 더하고 있다.
- 46 **EXHIBITION IN FOCUS** 자신만의 고유한 예술 세계를 구축한 2인의 전시.
- 47 **REMEMBER THE EXHIBITION** Mak2의 상상력부터 우에다 쇼지가 사진 속에 숨겨둔 기쁨의 순간까지, 다채로운 전시를 계기로 반짝이는 영감을 다시 한번 채워보자.



ART AWARD

제24회 송은미술대상전
우리나라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잘 알려진 송은미술대상이 24회를 맞이했다. 2001년 제정된 송은미술대상은 매년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한국 현대미술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해온 대표적인 미술상으로 송은문화재단에서 운영한다. 올해는 총 5백98명이 지원했고, 그중 본선에 오른 작가 20인의 그룹전이 서울 도산에 있는 송은의 전시 공간에서 열리고 있다. 참여 작가는 구나, 구자영, 김원화, 노상호, 박종영, 배윤환, 손수민, 송예환, 안유리, 알루, 엄재(oochoe), 오묘초, 유아연, 이승애, 이혜인, 조재영, 진민욱, 최장원, 추미림, 탁영준으로, 이들은 회화, 조각, 설치, 영상, 사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각자의 뚜렷한 개성과 실험적 시도를 담은 신작을 내놓았다. 이번 전시는 동시대 미술의 동향을 폭넓게 살펴보고,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치는 작가들의 독창적인 미감을 만나고, 한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전시는 2월 22일까지 진행되며 네이버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2-3448-0100 강주희(객원 에디터)



Splendid White

워치메이킹과 주얼리가 하나 되는 매력적인 만남의 순간을 선사하는 위블로의 스피릿 오브 빅뱅 32mm 주얼리를 소개한다. 슬림한 디자인이 여성스러운 감각을 선사하며 화려한 광채로 손목에 한층 강인한 무드를 더한다. 케이스와 다이얼, 베젤까지 킹 골드 소재에 총 2만7천7백82개의 각면으로 이루어진 4백79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마치 수천 개의 별이 떠 있는 듯 화려한 반짝임을 선사한다. 또 워블로가 사랑하는 소재인 화이트 천연 러브와 만나 대담하면서도 깨끗한 무드를 자아낸다. 총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MHUB1120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문의 02-3438-6031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Extreme High

바쉐론 콘스탄틴이 울트라-신 칼리버 2160으로 구동하는 트래디셔널 투르비옹 하이 주얼리 모델을 통해 트래디셔널 컬렉션을 한층 더 강화한다. 바쉐론 콘스탄틴이 지난 하이 워치메이킹 기술력에 하이 주얼리적 요소를 담아 유니크한 피스를 완성한 것. 인버저를 쥘 세팅이라는 탁월한 기법으로 리그부터 케이스 밴드, 베젤, 버클, 크라운, 다이얼까지 무려 3백 개가 넘는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했다. 또 다이얼 중앙에 장착한 투르비옹으로 바쉐론 콘스탄틴의 워치메이킹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바쉐론 콘스탄틴의 워치 제작 노하우는 하이엔드 보석 세팅 기술까지 갖춰짐을 여실히 증명했다. 문의 1877-4306



Snake Mystique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기념할 뱀 모티프 주얼리 3.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플가리 세르펜티 세투토리 브레이슬릿** 화이트 골드 소재에 뱀의 눈을 형상화한 에메랄드 2개를 세팅하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브레이슬릿 8천 9백60만원. 문의 02-6105-2120 **부쉐론 세렉 모뎀 원헤드 L 링** 뱀의 머리와 비늘에서 영감받아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1,277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32개로 제작했으며, 오픈워크 기법으로 다이아몬드와 원석의 눈부신 광채를 뽐내는 것이 특징. 3천만원대. 문의 02-3467-8334 **다미아니 에덴 이어링** 뱀의 유연한 라인을 모티브로 탄생했으며 블랙 세라믹과 핑크 골드 소재가 조화를 이룬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모토그래프 최민영 에디터 신장임**



ETERNAL NUMBER 5

샤넬에서 영원히 빛나는 숫자 5. 가브리엘 샤넬이 사랑했던 숫자 5는 하우스 전반에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된다. 샤넬 화인 주얼리 크리에이션 스튜디오에서 숫자 5의 굴곡진 실루엣을 따라 영원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N°5 컬렉션을 소개한다. 이터널 N°5(ETERNAL N°5) 변형 가능한 이어링은 18K 베이지 골드와 다이아몬드도 이루어졌으며, 숫자 5와 드롭 형태의 디테일을 분리 가능해 그날의 스타일링에 따라 변형해 활용할 수 있다. 이터널 N°5 네크리스는 18K 베이지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완성했으며 채굴을 따라 유려한 광채를 발산한다.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이강소의 <풍래수면시>展에 답하며

허우현도상 (虛宇懸圖上)

한국적 추상의 대가 이강소를 '텅 빈 층만'이라는 수식을 곁들여 지면에서 소개한 적이 있다. 평생에 걸친 부단한 사유가 담긴 그의 붓질 사이로 빛어지는 여백이 각자가 생각하는 공간을 상상할 수 있는 '열린 가능성'이라는 뜻에서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강소 개인전 <풍래수면시>(2024. 11. 1~2025. 4. 13)는 우주를 기본적 실재가 없는 관계의 그물로 보는 동양적 사고를 토대로 작가가 추구해온 '자유를 향한 무심의 필획'이 층만한 여백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생명감을 불러일으키는 기운(氣韻)이 공간을 수놓고 있다. 전시 제목인 '풍래수면시'는 송나라 시인 소옹(邵雍, 1011~1077)이 오언절구(五言絶句) 형식으로 지은 시 '청야음(淸夜吟)의 한 구절로 '바람이 물을 스칠 때'라는 뜻을 품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될 만큼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물결을 지그시 바라보며 시를 주고받던 옛 선비들처럼, 이강소가 던진 운(韻)에 화답한다면 어떤 시구가 어울릴까. 이 글의 필자는 '빈 우주는 그림 속에 걸려 있고'라는 뜻을 지닌 '허우현도상(虛宇懸圖上)'이라는 시구로 화답했다. 풍류도와 양자역학적 시각을 반영한 이강소의 작품과 이번 전시에 대한 필자의 감상을 응축한 구절이다. - 편집자주

月到天心處 월도천심처
달은 하늘 가운데 이르고

風來水面時 풍래수면시
바람이 수면을 스칠 때

一般清意味 일반청의미
맑고 청아한 이 맛을

料得少人知 요득소인지
짐작컨대 아는 이 적으니

청야음(淸夜吟) by 소옹(邵雍)

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는 이강소의 <풍래수면시>(2024. 11. 1~2025. 4. 13) 전시 풍경. 이강소, '청명 淸明 - 21021', 2021, 캔버스에 아크릴릭 물감, 260×400cm(×3). 이미지 제공_국립현대미술관 2 이강소(b.1943) 작가. Photo by 박찬우, 이미지 제공_이강소 작업실, 국립현대미술관

산수를 옮겨 전당 안에 펼치고

소옹의 시 '청야음'은 깊은 산속 정자에서 선비들이 고요히 물결을 바라보며 시를 주고받는 고즈넉한 풍경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관의 '서울박스라 불리는 전시 공간에 설치된 이강소의 작품들이 이러한 시적 정취와 맞물려, 관람객들에게 풍류적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산수를 옮겨 전당 안에 펼친 듯(山水移堂內), 사색적이고 운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서울박스에는 경주 분황사의 무거운 기와를 떠받치다 노쇠해서 물러난 붉은 기둥 세 주가 서 있다. 이 기둥들은 오랜 세월의 풍파로 군데군데 허물어져, 배흘림 기둥인지 민흘림 기둥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다. 기둥이 대들보를 지탱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대들보가 없으면 기둥까지 쓰러질 것 같은 역설적인 느낌을 준다(나무의 기억 - I, 2009). 관람객들은 이 낡은 기둥들을 보며 각자의 경험과 상상력을 통해 정자나 궁궐을 짓는 등 머릿속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건축한다. 맞은편에 보이는 주막(소멸, 1973/2024) 위로 거대한 건물의 현판처럼 보이는 작품 '청명(淸明)(2021)이 자리한다. 이 작품은 기호 같기도 하고 글씨 같기도 하며, 제목 그대로 맑고(淸) 밝다(明). 이와 함께 그 아래 펼쳐진 주막의 풍경은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의 시 '청명(淸明)을 떠올리게 한다. 이 시에서 두목은 "청명 시절에 주가(酒家)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다. 이러한 질문은 관람객들에게도 은연중에 화답시를 써야 할 것 같은 묘한 의무감을 불러일으킨다. 오래전에 사라진 문인화적 DNA가 이 공간에서 다시 살아난다. 기둥과 주막, 그리고 '청명'이라는 작품은 모두 관객의 상상과 사유를 자극하며, 단순한 감상이 아닌 풍류와 교감을 이끌어낸다.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를 중첩시키는 사색의 공간이 생성된다. 이강소의 작품은 바람과 물이 만나 찰나에 물결을 흔드는 순간과도 같다. 양자 중첩(quantum superposition)처럼, 그의 작업은 단일한 의미에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물리적 형태를 갖추었으면서도, 관객의 시선과 감각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그의 작품은 매 순간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며, 관객에게 '중첩된 경험'을 제공한다. 그의 작업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관객이 자신의 감각과 사고를 통해 작품을 체험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유도한다. 그는 예술을 통해 관객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매 순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열린 예술의 장', 그의 용어로는 '명석을 제공한다.



맑은 바람이 전당으로 불어오네

이강소의 초창기 '퍼포먼스(이벤트, 해프닝)'를 기억하는 관람객들은 초기 문제작이 일으킨 파격적인 스펀들과 최근 작품에서 드러나는 높은 격조 사이 극명한 차이에 당혹감을 느끼며 현기증을 호소할지도 모른다. 앞서 언급한 '소멸'은 그러한 초기 문제작 중 하나로, 1973년 그의 첫 개인전에서 선보인 작업이다. 당시 일반적인 갤러리 전시는 판매에 적합한 그림을 걸어놓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강소는 이러한 전통을 깨고 격조 높은 화랑을 파격적인 선술집으로 탈바꿈시켰다. 1973년, 서울 중구 YWCA 빌딩 지하 명동화랑에서 그는 나무 테이블과 의자처럼 영업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물건들을 옮겨 왔고, 무교동 길거리에서 주워 온 메뉴판까지 설치했다. 관람객들은 1백 원을 내고 탁주 한 잔을 마실 수 있었다. 오늘날 이러한 작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이강소가 제네대 아방가르드 퍼포먼스를 통해 실험적 예술의 장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작업 중 일부는 한국에서 여전히 낯설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1975년 파리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무제 75031'은 큰 주목을 받은 퍼포먼스 작품이다. 이강소는 전시관에 닭을 풀어놓고, 닭이 낡진 흔적을 통해 작품을 완성했다. 이 작업은 서구에서도 놀라움을 자아낼 만큼 전위적인 시도로, 살아 있는 동물을 퍼포먼스에 활용한 초기 사례 하나로 평가받는다(요셉 보이스의 1974년 퍼포먼스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퍼포먼스가 프랑스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1850년 제정된 그라몽 법(Loi Grammont)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동물 학대를 금지하되, 예술적 표현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관람객들은 닭의 흔적만으로 작품을 해석해야 했으며, 이는 예술적 표현의 경계를 확장하며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한 실험적 시도였다. 이 작업은 작가의 특정한 정서를 전달하기보다 관람객이 스스로 사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명석을 깔아준 것이었다. 그의 퍼포먼스는 당시 여전히 서구적 관점에 젖어 있던 파리 미술계에 충격과 신선함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한국 미술계에서는 '퍼포먼스를 새로운 장르로 여겼지만, 정작 작가에게는 '퍼포먼스'라는 명칭이 낯설게 느껴졌을 뿐, 행위 자체는 오히려 익숙했다. 이는 자연과 예술, 삶의 조화를 중시한 우리의 전통적인 풍류도(風流徒)의 정신과 닮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 '이강소의 생각이'라는 작가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3 1973년 서울 명동화랑에서 열린 첫 개인전에서 선보인 '소멸' 퍼포먼스 현장. 4 1975년 파리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무제 - 75031'. ※ 3, 4 이미지 제공_국립현대미술관

1960년대에 서구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이벤트 혹은 해프닝은 미술의 형식은 아니지만, 고대로부터 동아시아 일상에서 전통적으로 존재해왔다. 바로 '풍류도'이다. [...] 중국의 서성(書聖)이라 불리는 왕희지의 난정연회(蘭亭宴會)는 이벤트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동란 이후 조부님이 낙향하셔서 술을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작시(作詩)와 낭송의 풍류를 즐기셨고, 이러한 전통은 나에게 이벤트라는 장르가 매우 익숙한 매체가 되게 했다.

그의 퍼포먼스는 서구의 실험적 형식을 차용했지만, 그 뿌리는 동아시아 전통의 풍류와 깊이 맞닿아 있다. 왕희지가 행서(行書)의 최고 걸작인 <난정서(蘭亭序)>에서 '향날은 알 수 없고, 모든 것은 변화가며 머무르지 않는다(向之所欣, 俯仰之間, 已為陳迹)'라고 읊은 것처럼, 이강소의 퍼포먼스 역시 불확정성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관객의 참여에 따라 다채로운 의미를 형성한다. 그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실험적 행위를 넘어, 동서양의 예술적 경계를 뛰어넘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시대를 초월한 참여와 사유, 그리고 풍류의 미학을 담아낸 예술적 실천이다. 맑은 바람(여기서는 '풍류')이 전당으로 불어온다(淸風入堂來, 청풍입당래).



빈 우주는 그림 속에 걸려 있고

이강소의 회화는 마치 동물이나 오브제의 외곽만 대충 그린 것처럼 보인다. 그마저도 일부만 표현되어 있어 애매하고 완성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모호함은 단순한 미완성이 아니라, 관람객을 풍류로 초대하고 그의 독특한 '양자역학적 관점'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려는 시도다. 그의 '작가 노트'를 보면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각이 잘 드러난다. 그는 양자역학, 인공 지능 같은 과학적 주제를 언급하며, 2017년에 이미 인공지능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그의 작업은 점점 더 양자 중첩의 형태로 진화한다. 그의 작품은 상자를 열어봐야만 알 수 있는 슈뢰딩거의 고양이(Schrödinger's cat) 사고 실험처럼 관람객의 관찰과 해석, 감흥이 이루어지는 순간 비로소 구체적인 의미와 상태를 이뤄낸다. 즉 관람객의 상상과 사유가 작품 일부가 되는 '열린 구조'로 설계되었다. 예술과 과학, 고정된 의미와 열린 가능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내는 융합적 예술의 실험장으로 기능한다.

이강소의 작업은 원자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반영한다. 그는 경계만 그리는 경우가 많으며, 그마저 명확하지 않은 애매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동양 산수화에서 사용되는 백묘법(외곽선만으로 표현)과 여백의 미 전통과 연결된다. 그의 작품은 단순히 그려진 형상뿐 아니라, 바람, 물결, 기호, 전자 구름처럼 알 수 없는 추상적 공간과 그려지지 않은 여백을 통해 완성된다. 인간을 포함한 전 우주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의 구조를 살펴보면, 우주는 본질적으로 비어 있다. 원자는 중심에 있는 핵과 이를 둘러싼 전자 구름으로 구성되며, 이들 사이의 공간은 대부분 비어 있다. 원자의 부피 중 약 99.999999999999996%가 텅 빈 공간이다. 우주적 관점에서 이 빈 공간은 원자 간 거리와 결합해 전체 우주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결국 우주는 거의 대부분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인간은 원자가 반사하거나 흡수하는 빛의 파장을 통해 대상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뿐, 원자의 빈 공간을 직접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의 눈과 뇌는 '형태'와 '경계'만 해석해 실제로 받아 들인다. 결국 인간이 '보는' 것은 원자가 반사한 빛을 통해 그려진 이미지에 불과하다. 딱딱한 철근로나 책상 같은 고체도 원자적 관점에서는 전자 구름이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 구조를 유지하며, 과학 철학자 한스 라이헨바흐(Hans Reichenbach)의 표현을 빌리자면 '왕모기가 춤을 추는 것' 같다. 그러나 인간의 감각과 뇌에는 이러한 양자적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거나 관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강소의 작업은 인간이 실제로 본다고 여기는 세계가 사실은 비어 있는 우주의 본질을 시각적으로 은유한다. 그의 그림에는 '이 빈 우주가 걸려 있다(虛宇懸圖上, 허우현도상)' 이는 관객에게 단순히 형태를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경계 너머 보이지 않는 공간을 사유하도록 이끄는 예술적 도전이자, 우주의 진리에 대한 모험이다.

- 1 이강소, '무제 - 86019', 1986, 캔버스에 유화물감, 127.4×158cm.
 - 2 이강소, '무제 - 91193', 1991, 캔버스에 유화물감, 218.2×291cm.
 - 3 이강소, '무제 - 91183', 1991, 캔버스에 유화물감, 218.2×291cm.
 - 4 이강소, '무제 - 96204', 1996, 캔버스에 유화물감, 218.2×291cm.
- ※ 1~4 이미지 제공_국립현대미술관

누가 이 잔을 함께할까

소용은 '청아음에서 '이러한 청신한 맛음(一般清意味) 이는 사람 적으리라(料得少人知)'라며 세상의 무심함을 안타까워하고, '월도오동상음'에서는 '뜰 깊숙이 사람은 다시 고요하니(院深人復靜) 이 경치를 누구와 함께 말할까(此景共誰言)'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대상을 찾는다. 이강소 또한 자신의 예술을 통해 관람객과 교감하며 풍류를 나누고자 한다. 그의 작품은 마치 대화를 요청하는 원운시(原韻詩)처럼 느껴진다. 관람객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작업에 감응한 필자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만든 '청풍도라는 제운시(題韻詩)로 화답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글 심은복(AI 영화감독, 미술비평가) Edited by 고성연

山水移堂內 산수이당내 산수를 옮겨 전당 안에 펼치고

清風入座來 청풍입좌래 맑은 바람이 자리로 불어오네

虛宇懸圖上 허우현도상 빈 우주는 그림 속에 걸려 있고

誰人共此杯 수인공차배 누가 이 잔을 함께할까

'청풍도(淸風圖)' by 심은복과 챗봇들



Selection

매서운 겨울 바람에도 스타일리시함을 배가해줄 아웃도어 룩을 제안한다.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YOON JI YOUNG



램스킨 안감으로 휴대용 액정을 보호할 수 있는 비케타 레드 폰 파우치. 10.8×19.1cm, 50만원대
랄프 로렌 퍼플 라벨.

총 1.74캐럿 다이아몬드 40개를 세팅한 베젤과 푸른빛 자개 다이얼이 조화를 이루는 우먼 컴플렉스 캘린더 35MM 2천8백79만원 **블랑팡.**

Hdry® 방수 멤브레인 기술을 적용해 물 스텝 많이 환경변화 방수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엘마 시어링 푸퍼부츠 1백30만원 **캐나다구스.**

화이트 컬러의 스테인리스스틸 소재로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텀블러 500ml 가격 미정 **미우미우.**

면과 폴리에스터 혼방 소재로 주머니 근처에 포인트 로고를 새긴 파스텔 블루 컬러의 벨루어 팬츠 13만8천원 **노스페이스.**

플래티넘 소재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7개를 로고 옆면에 세팅한 C 드 캐르띠에 웨딩 밴드 4백만원대 **까르띠에.**

손백의 번이 반영되는 화이트 골드, 스카이라인, 스카이라인 시그니처 패턴을 특징으로 하는 7백29만원 **그리프.**

제이린드버그 02-547-2229 **론진** 02-3479-1940 **소파드** 02-6905-3390 **몽클레르 그레노블** 0030-8321-0794 **스와로브스키** 02-1522-9065 **에이피 뷰티** 080-023-5454 **빠두** 02-3277-0226 **미우미우** 02-541-7443 **블랑팡** 02-3479-1833 **랄프 로렌 퍼플 라벨** 02-3438-6235 **그리프** 02-2256-6810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5 **캐나다구스** 1644-6862 **노스페이스** 1899-2626 **샤넬** 080-805-9628 **까르띠에** 1877-4326 **에실로텍스타카** 02-501-4436

오매터(O Matter™) 프레임을 사용해 내구성이 좋고 눈을 보호해주며 안응태어나업 소재로 제작해 염과 수분 때문에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선글라스 45만7천원 **오글리 by 에실로텍스타카.**

백투의 시그니처로 고를 프러트로 새긴 알파카 털 나일론 혼방 소재의 블루 컬러 머플러 69만9천원 **빠두.**

취용감이 좋은 니트 소재의 클래식한 레드 컬러 클러브 76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위시드 데님 소재에 트윈드 체인과 실버 메탈 로고로 장식한 샤넬 22 스물 핸드백, 35×37×7cm, 가격 미정 **샤넬.**

Get



MONTBLANC

미국 현대문학의 보석, F. 스콧 피츠제럴드(F. Scott Fitzgerald)의 <위대한 개츠비>(1925년)에서 영감받아 새로 선보이는 컬렉션으로 고급스러운 블랙 및 래진 소재 배럴의 그레이트 캐릭터 오마주 투 그레이트 개츠비 스페셜 에디션 만년필 1백77만원 **몽블랑** 문의 1877-5408

The



CHANEL FINE JEWELRY

18K 베이지 골드 소재에 루비를 세팅해 포인트를 준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18K 베이지 골드와 화이트 골드 소재에 랠링 모티브를 더하고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한 무드를 자아내는 코코 크러쉬 싱글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확인 주얼리 문의 080-805-9628

List



AUDEMARS PIGUET

스위스 기요세 장인의 손에서 탄생한 시그니처 양각 처리 다이얼이 특징으로 지름 44mm 18K 핑크 골드 케이스에 블루 뉴, 뉴아주 50 컬러를 매치해 완성한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7천2백51만원 **오데마 피게** 문의 02-543-2999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당신을 응원하는 여덟 가지 특별한 셀렉션.
PHOTOGRAPHED BY YI JOO HYUK



RALPH LAUREN COLLECTION

도네갈 캐시미어 원사에 핸드 니팅 기법을 구현한 저지 스티치 스타일이 돋보이는 캐시미어 블렌드 도네갈 가디건 4백70만원대 **랄프 로렌 컬렉션** 문의 02-3467-6560

BLANCPAIN

클래식하고 모던한 디자인에 힘이 느껴지는 투르비용을 장착한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로 지름 44.6mm 레드 골드 케이스에 그린 선레이 다이얼을 매치하고 브라운 엘라게이터 레더 스트랩으로 묵직한 감성을 더했다. 1백6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빌레레 투르비용 카루셀 5억1천3백만원대 **블랑팡** 문의 02-3479-1833



GRAFF

나비가 가볍고 자유롭게 비행하는 모습에서 영감받은 컬렉션으로 화이트 골드에 총 17.32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그라프 클래식 버터플라이 컬렉션 멀티 셰이프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화이트 골드 보드에 총 2.64 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그라프 클래식 버터플라이 컬렉션 펜시 셰이프와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그라프** 문의 02-2150-2320

DIOR JOAILLERIE

(위부터 차례대로) 빅투아르 드 카스텔란이 디자인한 아이코닉한 까나쥬 그래픽 라인에 돋보이는 화이트 골드 밴드에 0.6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마이 디올 링, 핑크 골드와 화이트 골드로 조화롭게 디자인한 마이 디올 브레이슬릿, 핑크 골드와 화이트 골드를 매치한 뒤 1.62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마이 디올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문의 02-3280-0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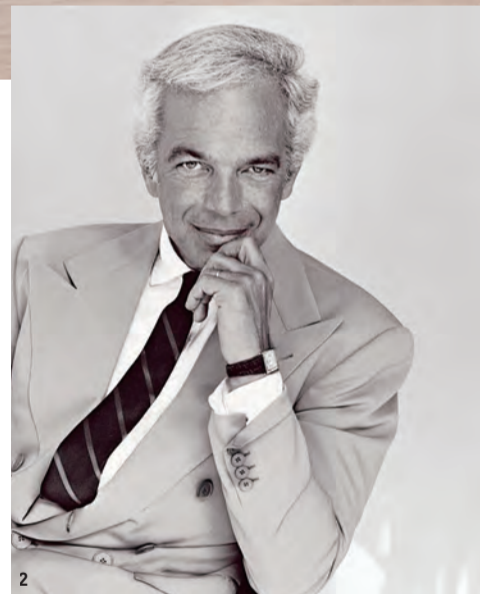
LOUIS VUITTON

2025 크루즈 쇼에서 선보인 우아한 아이템으로 아이코닉한 트렁크 라인을 재해석해 선보이는 슬림 트렁크 백, 모노그램과 모노그램 리버스의 조합에 부드러운 카우하이드 소재의 장식을 더해 니콜라 제스키에르만의 감성을 선사한다.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에디터 성정민**



The Legendary Journey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 스타일을 정의해온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패션 디자이너 랄프 로렌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베리 랄프(Very Ralph)>의 스크리닝 이벤트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다. 대륙을 건너 아시아까지 전달된 거장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여정에 동참했다.



“

제가 하는 일은 삶 그 자체를 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고, 주변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것(입는 것에서부터 생활 방식, 그리고 사랑하는 방식)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by 랄프 로렌

2024년 12월 4일, 세계적으로 찬사받는 패션 아이콘 랄프 로렌에 대한 HBO 다큐멘터리 <베리 랄프(Very Ralph)>가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프리미어를 개최했다. 다양한 수상 경력을 지닌 다큐멘터리 감독 수전 레이시(Susan Lacy)가 연출하고 제작한 이 영화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 스타일을 정의해온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패션 디자이너 랄프 로렌의 삶, 커리어, 그리고 변치 않는 업적을 진심 어린 시선으로 담아냈다. 상영회 전날 상하이 거리 곳곳에는 랄프 로렌의 현수막이 걸렸으며, 밤에는 화려한 드론 쇼로 다음 날 있을 스크리닝 이벤트를 축하했다. 당일 낮, 전 세계 기자들은 상하이 중심부에 있는 상하이 콘서트홀로 모여들었다. 대륙다운 규모와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하는 콘서트홀 내부는 다큐멘터리 제목인 'Very Ralph'로 물들었으며, 푸른빛 시트와 스크린으로 통일감을 주어 다큐멘터리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이 자리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정수정(크리스탈)과 하정우가 참석해 함께 관람하며 의미를 더했다.

50년의 브랜드 역사와 인간 랄프 로렌을 재조명하다

다큐멘터리 <베리 랄프>는 전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역사와 권위, 깊은 철학을 지닌 아이코닉한 디자이너 랄프 로렌의 인간적인 모습부터 비전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그가 걸어온 길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어린 시절 남다른 패션으로 친구들에게 주목받았던 그의 감각부터 뉴욕 브롱크스에서 보낸 초기 시절을 지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가정 생활, 그리고 수십억 달러 가치를 지닌 세계적인 브랜드를 창립하기까지, 랄프 로렌이라는 브랜드는 물론 랄프 로렌의 인생 그 자체를 담았다. 또 다큐멘터리에는 그가 인생을 살아오며 만난 가족, 친구, 저명인사의 심층 인터뷰가 포함되어 그들을 통해 랄프 로렌이란 인물에 대해 탐구하는 재미를 선사한다. 랄프 로렌 본인의 심층 인터뷰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랄프 로렌의 어린 시절, 디자인 철학, 그리고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한 도전과 성공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한다. 이렇듯 <베리 랄프>는 랄프 로렌의 선구적 정신을 바탕으로 그가 어떻게 미국적 상징성을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승화했는지 생동감 있게 펼쳐낸다. 완벽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창조하고 이를 시장에 자리 잡게 한 최초의 디자이너로서 그는 끊임없는 혁신과 독보적 업적으로 패션업계를 선도해왔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이는 없을 것이다.

랄프 로렌과 함께한 아름다운 상하이의 밤

스크리닝 이벤트가 끝난 후 상하이 중심부에 있는 월도프·아스토리아 상하이 온 더 번드 호텔에서 우아한 갈라 디너 이벤트가 이어졌다. 배우 정수정과 하정우는 랄프 로렌의 의상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했다. 정수정은 랄프 로렌 컬렉션 2024 폴 딜리버리의 켈트 재킷에 은은한 반짝임이 고급스러움을 부각하는 타베타 임펠리시 톱을 매치해 우아하게 연출했으며, 아크릴 팬츠에 RL 888 미니 크로스 보디 체인을 착용해 모던하고 세련된 룩으로 마무리했다. 하정우는 고급스러운 소재의 랄프 로렌 퍼플 라벨 2024 폴 딜리버리 켈트 코듀로이 재킷과 그레고리 코듀로이 트라우저 슈트로 뎀디함의 정석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중국 셀럽인 리빙빙, 덩차오, 고원원, 류시시, 귀징징, 쉬신, 아오안, 진백림, 풍덕륜, 주주, 교훈, 이내문, 양란, 범문방, 크리스토퍼 리, 모리아티 케일런 알렉산더, 사로차 찬킵하(프린), 우무에, 마리온 카운터, 케빈 탄, 연계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갈라 디너에서는 중국 유명 피아니스트의 공연과 바이올린 연주 등이 이어지며 상하이에서의 랄프 로렌 디너를 더욱 아름답게 장식했다. 문의 02-3467-6560(랄프 로렌 컬렉션), 02-3438-6235(랄프 로렌 퍼플 라벨) | 에디터 성정민(상하이 현지 취재)

1 랄프 로렌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베리 랄프(Very Ralph)>의 스크리닝 이벤트가 열린 상하이 콘서트홀. 2 전설적이고 저명한 디자이너로 평가받는 다큐멘터리의 주인공 랄프 로렌. 3 푸른빛의 고풍스러운 느낌으로 장식된 스크리닝 이벤트장. 4 스크리닝 이벤트 후 갈라 디너가 열린 월도프·아스토리아 상하이 온 더 번드 호텔. 5 홀리데이 무드처럼 레드빛으로 꾸민 갈라 디너 테이블. 6 랄프 로렌 컬렉션 2024 폴 딜리버리 의상을 고급스럽게 소화한 배우 정수정. 7 랄프 로렌 퍼플 라벨 2024 폴 딜리버리 의상을 매치하고 스크리닝 이벤트에 참석한 배우 하정우.





New Landmark

청담동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등장했다. 바로 고유의 파리 모더니즘 미학을 더한 익스테리어의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이다. 레더 제품부터 주얼리까지 다양하게 선보이며, 곳곳에서 셀린느 아트 프로젝트의 현대미술 작품 또한 만나볼 수 있다.

지난 2024년 11월, 셀린느가 서울에 상륙했다.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하는 하우스만의 모던하지만 고유의 멋을 지닌 건축과 건물 디자인이 청담 패션 거리에서 단연고 시선을 사로잡는다. 지하 1층, 지상 6층까지 총 7층으로 이루어진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은 시대를 초월한 세련된 공간으로 꾸몄는데, 특히 비스포크 파사드를 더한 건축 디자인이 돋보인다. 지상의 2개 층은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투명한 글라스를, 나머지는 더욱 프라이빗하고 특별한 무드를 더하기 위해 유색 글라스를 적용했다. 또 이번 설계에 참여한 프랑스 출신 건축 전문가의 영향으로, 반듯한 구조적 기둥들에는 파리식 지붕을 연상시키는 징크 자재를 사용했다. 매장 내부 곳곳에서는 최고급 천연 소재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트레버턴 및 아라베스카토, 갈라카타 오이스터, 그랜드 엔틱리 마블 등 고급 천연 대리석과 더불어 오크 및 브라스, 엔틱리 골드 미러 같은 따뜻한 소재를 사용해 대조미를 이끌었다. 이처럼 셀린느만이 구현할 수 있는 하모니 덕분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21세기 브루타리즘 양식에 정제미와 우아미를 더하고, 균형미와 개방감이 느껴지는 조각적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1층에서는 여성용 레더 제품과 스물 레더 제품, 그리고 셀린느 메종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고,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대형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2층과 3층에 걸쳐 여성용 액세서리와 레디투웨어, 그리고 슈즈가 진열되어 있다. 셀린느 보메 라인은 오프 퍼퓸러리 오르간과 함께 2층에서 경험해볼 수 있다. 4층에는 프라이빗한 공간을 마련했는데, 세심하게 고른 빈티지 및 스페셜 오디 제작 가구로 공간을 완성했다.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 전반을 아우르는 콘셉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낸 과 동시에 건축양식에 부응하는 조각적 형상으로 내부를 채우는 역할도 수행한다. 지하 1층은 셀린느 남성 전용 공간이다. 모더니즘과 미니멀리즘적 미학에서 영감을 받은 검은 계단과 버티컬 미러, 네온 조명이 마주한 배치를 통해 보다 확장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어두운 컬러의 대리석 벽면

1 비스포크 파사드를 적용한 건축 디자인이 돋보이는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 2 여성용 레더 제품과 스물 레더 제품, 그리고 셀린느 메종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는 1층. 3 플래그십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박보검, 수지, 뉴진스 다니엘, TWS. 4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 익스클루시브로 선보이는 미니 16 백.

은 남성적 세계를 잘 드러내며 동시에 인테리어 액센트를 수평적으로 가미해 디자인 전반에 정결함을 더했다. 또 어두운 색조의 목재 및 가죽 소재 가구를 배치해 다른 곳보다 선명한 색조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플래그십 곳곳에서 셀린느 아트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폭넓게 선정한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 벤자민 랄리에(Benjamin Lallier)의 회화 작품, 한국의 조각가 김윤신과 맷 브라우닝(Matt Browning), 루카스 게로니마스(Lukas Geronimas), 존 더프(John Duff), 엘리 핑(Eli Ping), 니콜라 마티니(Nicola Martini)의 조각이 포함된다.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엠베스터 박보검, 수지, 뉴진스 다니엘, TWS(투어스), 그리고 케빈 파커(Kevin Parker)가 자리를 빛냈다. 청담 패션 거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낸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을 방문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66 문의 1577-8841. 에디터 윤자경



Beyond the Top

정상을 넘어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도전 정신, 혁신적 시각을 통해 차별성을 추구하는 태그호이어가 2025년 한국 지사를 론칭한다. APAC(Asia-Pacific) 매니징 디렉터 브리스 차플리긴(Brice Tchapyguine)에게서 듣는 한국 지사 시장 전략.



1860년 스위스 상티미에(St-Imier)의 작은 공방에서 탄생한 스위스 아방가르드 워치메이커 태그호이어는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지난 1백60여 년간 워치메이킹의 전설로 자리 잡았다. 시간을 측정하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창립자 에드워드 호이어의 이념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고급 스포츠 워치와 정밀한 크로노그래프를 지속적으로 탄생시켰다. 와인딩 시스템을 비롯해, 크라운을 감아 충전시키는 포켓 워치 크로노그래프와 진동 기어 등 수많은 특허를 획득하며 현재까지도 정밀한 스위스 크로노그래프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으며, 현재도 고급 스포츠 워치를 향한 열정과 노력을 쏟고 있다. 이러한 유구한 헤리티지를 지닌 태그호이어가 한국 지사를 론칭한다. 태그호이어를 '크로노그래프, 하이-퍼포먼스, 혁신'이라는 세 단어로 명료하게 정의하는 매니징 디렉터 브리스 차플리긴에게 한국 지사의 시장 전략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Stylechosun(이하 S) APAC 매니징 디렉터로 부임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2024년은 어떤 시간이었나요?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년은 저에게 배움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태그호이어 또한 중요한 전략적 이정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큰 성과를 이룬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태그호이어 팀은 강한 리테일 사고방식 함양을 우선으로 APAC 전역에서의 리테일 네트워크 확대, 즉 부티크를 오픈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태그호이어를 '선망하는 브랜드(desirability)'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이벤트를 포함한 모든 활동을 매우 신중하게 기획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진행된 아우어리서치 프로페셔널 300 팝업을 성대하게 마무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S 2025년 한국 지사를 론칭하게 됩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한국 시장은 중요하고 잠재력 있는 시장입니다. 한국의 럭셔리 시장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소비자의 안목이 세련되고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 럭셔리에 대해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아 브랜드가 성장하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태그호이어는 한국 시장과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가까이에서 고객들을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지사 론칭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전략을 한국 시장에 맞게 현지화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적합한 인재를 영입하고, 최적의 매장 위치를 선정하며, 주요 리테일러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S 한국 지사 론칭 전략이 궁금합니다. 태그호이어가 한국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브랜드 자산(equity)과 선망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지화된 마케팅과 매장 운영을 통해 브랜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것입니다. 태그호이어의 비전은 경쟁이 치열한 한국 시장에서 럭셔리 스포츠 워치의 리더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크로노그래프의 선구자로서의 브랜드 헤리티지와 기술력을 강조하며, 도전과 성취를 추구하는 브랜드 DNA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한국 내 24개 부티크를 직접 운영하는 네트워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태그호이어 글로벌에서 가장 많은 부티크를 보유한 국가가 되어 이는 유럽, 미국, 호주보다 큰 규모입니다. 24개 부티크라는 강력한 리테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객 경험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변형(transformation)을 이



끌어내려 합니다. 변화하는 리테일 환경과 디지털 생태계에 발맞추어 리테일 중심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되, 디지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후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에서도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할 것입니다.

S 2025년에 가장 주목해야 할 위치와 기술력은 어떤 것들일까요? 브랜드의 핵심 DNA이자 정체성인 모터 스포츠와의 연결성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태그호이어에 있어 모터 스포츠란 단순한 스포츠시이나 마케팅 전략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1991년부터 가장 위험한 레이싱 대회로 손꼽히는 전설적인 레이스 '가레라 파나메리카나'의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LVMH가 2025년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포뮬러 1(Formula 1®) 파트너십으로 복귀합니다. 태그호이어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포뮬러 1의 공식 타임키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포뮬러 1에 관련해 다양한 브랜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포르쉐와의 파트너십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또 내년에는 모나코, 가레라, 포뮬러 1 등 아이코닉한 컬렉션에서 혁신적인 기술력을 적용한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위치는 모나코입니다. 모나코는 태그호이어의 레이싱 DNA와 브랜드 헤리티지를 상징하는 동시에, 뛰어난 기술력으로 현대적 감각을 더한 독보적 아이코닉입니다. 1970년대 전설적인 포뮬러 1 레이서 스티브 맥퀸이 착용했던 것과 같은 디자인의 모나코 칼라비 11 크로노그래프부터 모나코 크로노그래프 컬트 에디션, 자사 무브먼트 호이어 02를 탑재한 모나코 호이어 02 크로노그래프, 레이싱 정신을 담은 스키텔레트 디자인까지, 모나코는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기술력으로 모던함을 표현하는 완벽한 예입니다.

S 한국의 리테일 파트너, 고객, 시계 애호가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태그호이어는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한국 럭셔리 시장 내 많은 경쟁 브랜드와 고객의 다양한 취향 변화에도 굳건한 입지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미디어와 리테일러의 지원 덕분이며,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와 혁신성을 표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태그호이어 활동의 스케일과 컬러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 또한 태그호이어의 비전에 큰 자신감을 느낍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문의 02-3479-6021 에디터 윤자경



1 태그호이어의 APAC 매니징 디렉터 브리스 차플리긴. 2 지름 39mm 케이스의 태그호이어 모나코 칼라비 11 크로노그래프. 3 브랜드의 레이싱 헤리티지와 최첨단 소재, 혁신적 디자인을 결합한 태그호이어 가레라 크로노그래프 익스트림 스포츠.

블랙 톱과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시어링 퍼
코트 6백30만원 모두 **이크네 스튜디오**.
화이트 골드 소재의 팬더 모티브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하고 에메랄드로
눈을, 옅은색 코를 완성한 팬더 드 까르띠에
이어링 7천1백만원대, 옅은 골드 소재에
차보라이트 가넷 2개로 눈을 완성하고 총
0.24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36
개와 옅은색로 한지를 장식한 팬더 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3천4백만원대, 화이트
골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옅은색와 에메랄드로 눈과 코를 완성한 팬더
드 까르띠에 링 2천3백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the dazzler

매혹적인 그녀, 주얼리 포트레이트. PHOTOGRAPHED BY KANG HYEAWON



플라워 장식의 돋보이는 스트레치 저지
소재 재킷과 트윈드 스커트 모두 가격
미정 **샤넬**.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 장식으로 완성한 **까멜리아**
초커, **까멜리아** 플라워가 볼드한 매력을
자아내는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
소재의 **까멜리아** 링, 18K 옅은 골드
소재의 아이코닉한 코코 크러쉬
스몰 링, 18K 베이지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가미한 코코 크러쉬 미니
링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확인 **주얼리**.



가벼운 나파 램 스킨 소재로 플라잉코에서
 영감받은 매듭 스타일이 돋보이는 울타닉 드레스
 8백20만원대, 탈착 가능한 로에베 인그레이빙
 네스트 브로치를 더한 싱글브레스트 울 재킷
 4백30만원대 모두 **로에베**. 더블 G 버클과
 크리스탈 체인 디테일의 블랙 페이턴트 레더
 하이힐 슬링백 펌프스 2백50만원 **구찌**. 18K
 옐로 골드 소재의 티파니 하드웨어 엑스트라
 라지 링크 이어링, 티파니 하드웨어 스몰
 싱글 램 네크리스, 길이 45.7cm의 18K 옐로
 골드 티파니 하드웨어 그레듀에이티드 링크
 네크리스, 91.4cm 길이로 드라마틱한 연출이
 가능한 티파니 하드웨어 스몰 램 네크리스,
 18K 옐로 골드 소재의 티파니 하드웨어 라지
 링크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티파니**.
 옐로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간헐적으로
 세팅해 구조적인 매력을 자아내는 르 다미에
 드 루이 비통 링 라지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보디 실루엣을 따라 흐르는
 부드러운 울과 실크 리브드 저지
 소재 드레스 3백만원대 **펜디**.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 1개를 가미해
 포인트를 준 LV 볼트 메쉬 이어링, 옐로
 골드 LV 모티브를 엮어 아이코닉하고
 볼드하게 완성한 LV 볼트 메쉬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니트 롬과 실크 크레이프 모슬린
 소재의 러플 스커트 모두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화이트 골드 소재에 0.34캐럿 로즈 컷
 다이아몬드 2개와 2.01캐럿 라운드
 다이아몬드 5백18개를 세팅해 섬세한
 공작 깃털처럼 완성한 플럼 드 핑 화이트
 골드 미디엄 펜던트 이어링, 0.51캐럿 로즈
 컷 다이아몬드 1개와 1.95캐럿 라운드
 다이아몬드 3백14개로 완성한 플럼 드
 핑 라지 링 모두 6천만원대 부쉐론.



불꽃같이 돋보이는 와플 울 페플럼
 롬, 울과 실크 소재를 믹스한 자카드
 모노그램 72 비대칭 드레이프
 스커트 모두 가격 미정 **자방시**,
 매끄러운 굴곡의 로즈 골드 후프로
 완성해 모던하고 볼드한 매력의 돋보이는
 이코니카 이어링, 로즈 골드에 스타,
 스퀘어, 트라이앵글 등 유니크한
 셰이프의 다이아몬드 24개를 세팅한
 이코니카 라지 링, 97개의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이코니카 링, 이코니카
 엑스트라 슬림 로즈 골드 브레이슬릿,
 80개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로즈 골드 체인 이코니카 브레이슬릿,
 이코니카 볼드 체인 로즈 골드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포멜라토**.

프린지 마감으로 개성을 더한 핏
 쿠페 크레이프 소재의 롱 드레스 9
 백36만원대 보테가 베네타.
 총 0.81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백99개를 세팅한 샹스 인피니 크레이지
 8 이어링 1천9백58만원. 화이트 골드에
 총 4.72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5백73개와 각 0.3캐럿, 0.5캐럿의 페어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샹스 인피니
 네크리스 가격 미정 모두 프레드.



라미네이티드 스웨이드 소재의 플러티엄
 컬러가 고급스러움을 부각하는
 케일렌 가운 드레스 가격 미정
 랄프 로렌 컬렉션 라운드 다이아몬드
 총 15.03캐럿을 섬세하게 세팅해
 완성한 드롭형 이어링 가격 미정
 그라프 고대 로마의 율결 문양 건축
 장식에서 영감받아 완성한, 다이아몬드
 세팅 화이트 골드 소재 에두알레
 네크리스 3천4백만원대 부첼라티.

헤어 최은영
 메이크업 서아름
 모델 Yonamine Carol(굿프렌즈 모델)
 어시스턴트 김보민
 에디터 정정민



아크네 스튜디오 02-542-2290
 까르띠에 1877-4326
 샤넬, 샤넬 화인 주얼리 080-805-9628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02-6105-2228
 부쉐론 02-6905-3322
 지방시 02-546-2790
 포렐리토 02-3143-9486
 펜디 02-544-1925
 루이 비통 02-3432-1854
 로에베 02-3479-1785
 구찌 02-3452-1921
 티파니 1670-1837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프레드 02-514-3721
 랄프 로렌 컬렉션 02-3467-6560
 그라프 02-2150-2320
 부첼라티 02-3440-5613



1 발렌티노 가라바니 비바 슈퍼스타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발렌티노 가라바니에서 1970년대의 레트로한 감성을 재해석해 '비바 슈퍼스타'를 출시했다. 메종을 상징하는 V 로고와 슬라이딩 핸들 디자인이 특징이며 버터 & 화이트, 블랙 & 브라운 등 2가지 컬러와 스몰, 미디엄, 라지 등 3가지 사이즈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2015-4655

2 호간 여성 H-스트라이프 컬렉션 제안 호간이 겨울 시즌을 맞이해 스포티한 스타일의 호간 홀리데이 여성 H-스트라이프 컬렉션을 제안한다. 측면을 가로질러 이어지는 H 디테일, 누백 소재로 높은 내구성을 갖춘 H-스트라이프 스니커즈와 앙탈 안감이 특징인 H-스트라이프 부츠로 이루어졌다. 문의 02-540-0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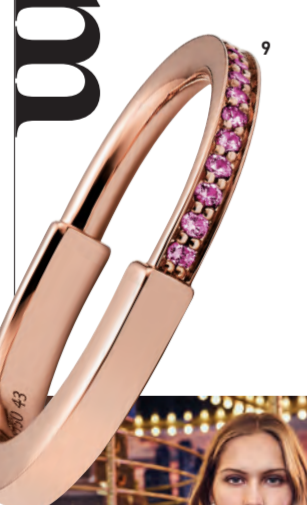
3 시세이도 바이탈 퍼펙션 업리프팅 앤 퍼밍 어드밴스드 크림 글로벌 프레스티지 코스메틱 브랜드 시세이도가 '바이탈 퍼펙션 업리프팅 앤 퍼밍 어드밴스드 크림'을 제안한다. 시세이도의 1백50년 피부과학 기술을 접목해 탄생시킨 '사플라워레드™'을 함유해 피부 노화 징후와 주름 개선, 리프팅까지 최적의 컨디션을 선사한다. 문의 080-564-7700

4 지방시 뷰티 2025 지방시 리미티드 꾸뛰르 캡슐 컬렉션 지방시 뷰티에서 2025년 봄의 해를 기념해 리미티드 꾸뛰르 캡슐 컬렉션을 출시했다. 봄의 해에 태어난 지방시의 뮤즈 위베르 드 지방시에게 영감을 받아 파이톤 패턴 케이스로 제작한 르 루즈 앵페르디 인텐스 실크, 프리즘 리브르 루스 파우더, 프리즘 리브르 스킨-케어링 글로우 쿠션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80-801-9500

5 토즈 여성 2025 프라-스프링 컬렉션 이탈리아 럭셔리 패션 브랜드 토즈에서 2025 프라-스프링 여성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번 컬렉션은 소재의 품질을 강조해 토즈의 시그니처인 레더 소재를 활용한 디자인과 따뜻하고 내추럴한 브라운 톤이 특징이며 아우터, 셔츠, 백 등 다채로운 아이템으로 출시되었다. 문의 02-3438-6008

6 론진 콘퀘스트 크로노그래프 리미티드 에디션 론진이 국제스키연맹(FIS)의 공식 파트너로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제48회 FIS 알파인 스키 세계 챔피언십 대회를 기념해 콘퀘스트 크로노그래프 스키 에디션을 2천26피스 한정으로 선보였다. 양면을 여러 층으로 반사 방지 코팅 처리한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덮여 있으며, 최대 100m의 방수 기능을 자랑한다. 문의 02-3479-1940

Showroom



7 그라프 'I Wish' 캠페인 그라프에서 'I Wish' 홀리데이 캠페인의 새로운 버전을 공개했다. 이 캠페인에는 그라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주얼리의 광채와 유니크한 매력을 담아냈다.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펜시 인텐스 옐로 오벌 다이아몬드 링, 하이 주얼리, 솔리테어 링, 다이아몬드 컬렉션 등 다채로운 그라프 컬렉션을 소개한다. 문의 02-2150-2320

8 로에베 퍼퓸 온 파세오 포 마드리드 컬렉션 스페인 럭셔리 향수 브랜드 로에베 퍼퓸에서 '온 파세오 포 마드리드 컬렉션'을 출시했다. '라 벨라 시벨레스', '산 미구엘', '데보드', '오페라', '마이리트', '로사레다' 등 6개 제품으로 로에베가 탄생한 마드리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으며, 마드리드 각 명소의 향기를 담았다. 문의 02-6905-3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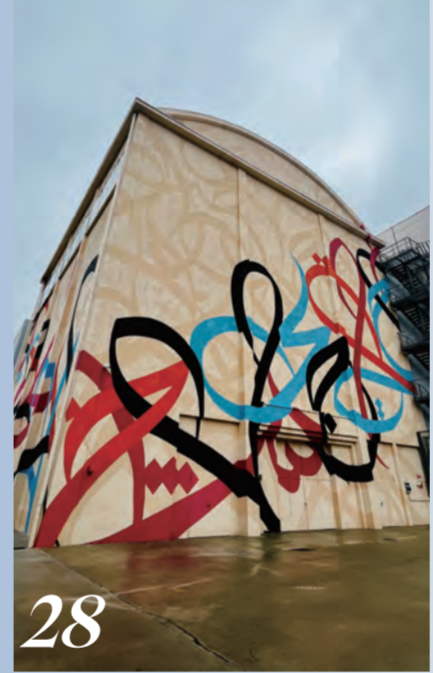
9 티파니 티파니 락 컬렉션 새로운 컬러 공개 티파니에서 1883년 제작된 골드 자물쇠 브로치를 모티브로 한 티파니 락 컬렉션을 새로운 컬러 쟂스톤 버전으로 공개했다. 모든 제품은 18K 로즈 골드 소재이며, 사랑과 권력을 상징하는 쟂스톤인 핑크 사파이어를 세팅해 네크리스, 브레이슬릿, 링 등 다채로운 아이템으로 출시했다. 문의 1670-1837

10 루이 비통 '마법의 회전목마 어드벤처' 홀리데이 캠페인 공개 루이 비통에서 '마법의 회전목마 어드벤처' 홀리데이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 캠페인은 눈부신 설경을 배경으로 한 마법의 회전목마를 중심으로 펼쳐지며 루이 비통이 소중하게 여긴 순간과 장소를 담았다. 레디투웨어와 가죽 제품, 파인 주얼리 등 다채로운 아이템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32-1854



Art + Culture

Special



28

30

42

artification

우리는 '예술 인간', '예술화', '미학' 같은 단어가 클리셰처럼 기능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작은 캔 갈처럼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소한 물건만 보더라도,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는 독일 철학자가 말했듯, 그 사물을 개별적이고 특별하게 만드는 '예술의 힘' 바탕으로 디자인된 것에 끌리기 마련이죠. 그는 이처럼 도처에 침투한 일상 사물의 심미화가 주는 환영 덕분에 아름다운 물건을 소유하려는 우리의 욕망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예술이 존재하지만, 이는 미적인 것을 향유하려는 인간의 성향을 이용해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무엇이든 아름답고 소중한 경험으로 변환시키려는 자본주의적 노력의 산물이라고 본다면 너무 차갑고 건조한 냉소주의일까요. 예술이 남용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착취 구조 속에서 예술 세계가 작동하지만, 그것이 예술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소비사회의 틀 안에서 창작이 활성화될 수 있고, 산업적 조건이 때로는 예술 세계에 굉장한 원동력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요. 20세기의 문호 오스카 와일드가 산업이 없는 삶은 메마른 불모지이고, 예술이 결여된 산업은 야만이라고 했듯이 말입니다. 저도 사물을, 공간을, 동네를, 도시 전체를 바꿔놓은 산업디자인과 공간의 미학, 문화적 계승 사례를 접하며 이 세계에 대한 관심의 촉수를 점점 더 뻗치게 되었고, 예술이 인간의 존재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는 데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술은 예술가나 예술을 둘러싼 복잡다단한 세계와 달리, 그 자체로 '자율적 본질'과 '강한 힘'을 지녔기에 이토록 여러 생태계를 움직이면서 예술화를 이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스타일 조선일보> 'Art+Culture' 겨울 스페셜호에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사회적 취향, 복합 단지 등 여러 동인을 아우르는 공간의 예술화 사례와 함께 다양한 전시 소식을 담았습니다. 특히 3인의 예술가를 소개한 '지면 전시'는 울퉁 실재하는 공간에서의 전시로 이어질 예정이라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글 고정연(아트+컬처 총괄 디렉터)

밀라노의 아트 스페이스, 피렐리 안가르비코카(Pirelli HangarBicocca)

거장의 예술 작품, '공간'으로 거듭나다



PHB 야외 공간에 있는 벽화. eL Seed, Waves Only Exist Because the Wind Blows, 2024. Courtesy eL Seed and Pirelli HangarBicocca, Milan, 2024 © 2024 eL Seed / SIAE Photo by Lorenzo Palmieri

조상이 남긴 문부신 문화유산과 다채로운 얼굴을 지닌 천혜의 자연 덕에 부리움을 사는 나라를 꼽자면 이탈리아는 둘째 가라면 서럽다 못해 분노를 토해내지 않을까. 누구보다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로마를 비롯해 베니스, 나폴리, 피렌체, 포시타노, 시실리... 대체 이 아름다운 나라의 어느 도시에 엄지손가락을 들어줄지에 대한 논쟁(?) 역시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가장 세련되고 현대적인 도시로서 '행사의 메카'라는 수식을 붙일 만한 최적인 도시는 밀라노라는데 이견을 표하기는 힘들다.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축제인 살로네 델 모빌레를 비롯해 패션 위크, 엑스포 같은 대형 행사를 펼쳐내는 도시 아닌가. 최근에는 아트 신도 더 풍부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대개 분, 초를 다룰 정도로 여정이 뻘뻘한 행사 기간을 소화하다 보니 정작 버킷 리스트에만 소중히 담아둔 아트 스페이스가 있었다. 마침내 발길이 닿은, 밀라노 외곽에 위치한 피렐리 안가르비코카(Pirelli HangarBicocca). 방대한 면적(15,000㎡)에 펼쳐진 단층 건물과 현대미술의 조화가 무척이나 인상적인 이 비영리 아트 스페이스는 적어도 당분간은 필자의 '최애'로 머무를 듯하다.

이미지 제공, Pirelli HangarBicocca

밀라노 외곽에 있는 비영리 아트 스페이스 피렐리 안가르비코카(Pirelli HangarBicocca, 이하 PHB) 정원에 있는 파우스토 멜로티(Fausto Melotti, 1901~1986)의 조각 작품. Fausto Melotti, La Sequenza, 1971-81, Installation view wat Pirelli HangarBicocca, 2024. Courtesy Pirelli HangarBicocca, Milan and Fondazione Fausto Melotti, Milan © Fausto Melotti, by SIAE 2024 Photo by Agostino Osio

안젤름 키퍼를 만나러 가는 길목에서...

피렐리 안가르비코카(Pirelli HangarBicocca, 이하 PHB)라는 고유명사를 처음 접하면 심중팔구는 '이게 미술관 이름이라고?!'라는 반응을 보여왔던 것 같다. 피렐리는 타이어 브랜드이자 기업 명이고, 안가르는 격납고를 뜻하고, 비코카는 밀라노 외곽의 지역명(Bicocca district)이자 유서 깊은 15세기 빌라 이름이기도 하다. 설립 시점(2004년)으로부터 20주년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아트 스페이스는 과거 공장 지대를 동시대 미술을 품어내는 커다란 '예술 격납고'로 탈바꿈시킨 성공 사례다. 특히 2012년 런던 테이트 모던 출신인 비센테 토돌리가 합류하면서 토대를 다졌는데, '성공적'이라 말하는 이유는 이 시대의 걸출한 다국적 작가를 소개하고, 그들이 새로운 시도를 펼칠 수 있는 전시 미학을 실천하면서 미술계의 호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비롯해 누구든 입장료 없이 관람할 수 있어서다. PHB가 추구하는 강령인 'make art open and accessible to everyone'과 맞닿은 지점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독일 출신 현대미술가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의 걸작이 PHB의 한 전시 공간에 영구히 터를 잡고 있기에 늘 기회를 엿보다가 지난 가을을 드디어 발걸음을 했다.



이미지 제공, Pirelli HangarBicocca

PHB의 서점에 있는 전시 도록 모음. Courtesy Pirelli HangarBicocca, Milan Photo by Lorenzo Palmieri



20년에 걸쳐 진화한, 독특하고 출중한 현대미술의 보금자리

우버 택시를 타고 PHB에 도착하자 건물 윤곽이 보이고 입구에서는 갈대로 뒤덮인 옥의 정원 속 조각 작품이 반겨준다. 밀라노 출신의 조각가 파우스토 멜로티(Fausto Melotti, 1901~1986)가 만든 'La Sequenza(Sequence)'(1971~1981)라는 7m 높이의 철제 조각으로 연갈색 정원의 색조와 하늘빛을 배경으로 한 적색의 실루엣이 유난히 눈길을 잡아끈다. 작가의 딸이 기증하면서 2010년 이 정원의 수호신처럼 자리하게 됐다. 안으로 들어서면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키즈 룸과 비스트로, 양성향 '출판력을 자랑하는 재단에서 펴낸 도록을 볼 수 있는 서점 등이 위치한 홀을 지나, 전시 공간으로 이어지는 동선으로 자연스레 연결된다. 실내 전시는 개인전을 여는 세 공간으로 나누어 있는데, 첫 번째는 주로 떠오르는 신진 작가를 소개하는 '셰드(Shed)', 그리고 이를 지나면 PHB의 넉넉한 공간을 활용해 대형 프로젝트를 열마든지 시원하게 펼칠 수 있는 '나바테(Navate)'와 '큐보(Cubo)'가 나온다. 현재 셰드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영화감독이자 영상 작가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사오다트 이스마일로바(Saodat Ismailova, b. 1981)의 개인전 <A Seed Under Our Tongue>이 열리고 있다(1월 12일까지). 20년에 걸친 작가의 작업 세계에 대한 서베이 성격의 전시로 이탈리아에서 첫선을 보였는데, 중앙아시아의 사회, 정치, 문화를 아우르는 복잡다단한 현실을 시적 정서를 품으면서도 강렬함을 지닌 자신만의 스타일로 풀어냈다. 간만에 설렘을 안겨준 보석 같은 작가다. 주로 미술사에서 인정받을 만한 작가의 회고전을 다루는 나바테에서는 스위스 예술가 장 텡겔리(1925~1991) 전시가 열리고 있다(2월 2일까지). 키네틱(kinetic) 아트로 알려진 그는 폐품을 모아 '메타메카닉스'라는 기계 조각을 제작해 현대 산업사회의 물질 문명에서 비롯된 비인간성을 풍자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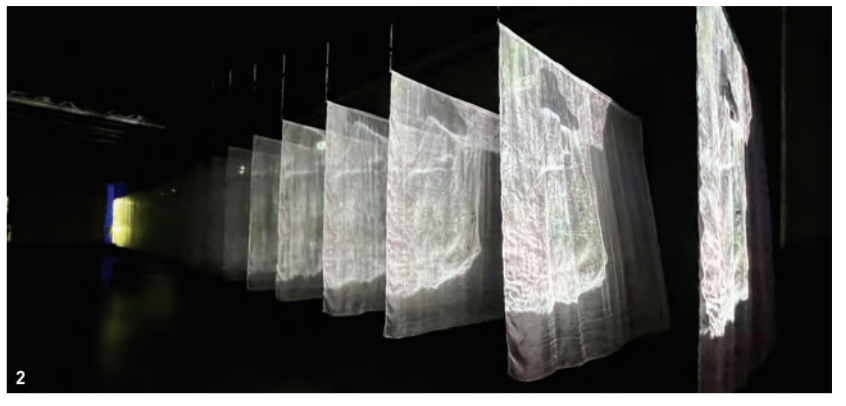


1 우즈베키스탄 출신 영화감독이자 영상 작가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사오다트 이스마일로바(Saodat Ismailova, b. 1981)의 개인전 <A Seed Under Our Tongue>이 열리고 있다(1월 12일까지). Exhibition view at Pirelli HangarBicocca, Milan, 2024. Courtesy the artist © Saodat Ismailova and Pirelli HangarBicocca, Milan. Photo by Agostino Osio

2 사오다트 이스마일로바 개인전 모습. Photo by 고성연

3 PHB에 자리한 독일 거장 안젤름 키퍼의 영구 설치 작품. Anselm Kiefer, The Seven Heavenly Palaces 2004-2015. Courtesy Pirelli HangarBicocca. Photo by Agostino Osio

4 스위스 예술가 장 텡겔리(1925~1991) 회고전 통째로 2월 2일까지. Jean Tinguely, Requiem pour une feuille morte, 1967. Installation view, Pirelli HangarBicocca, Milan, 2024 Collection Fonds Renault pour l'art et la culture, France Courtesy Pirelli HangarBicocca, Milan Jean Tinguely: © SIAE, 2024 Photo by Agostino Osio * 1,3,4 이미지 제공, Pirelli HangarBicocca



그리고 마침내 '키퍼'의 공간. 독보적인 오라가 느껴지는 영구 설치

여기에서 살짝 더 들어가면, 안젤름 키퍼의 존재감 넘치는 영구 설치 작품을 기다리고 있다. 어두운 공간에서 묘한 오라를 뿜어내는 'The Seven Heavenly Palaces(2004~2015)라는 장소 특정적 작업이다. 제목이 암시하듯 7개의 기다란 타워 형태의 콘크리트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높이는 13~19m 정도에 이른다. 안젤름 키퍼는 1945년생으로 전범국가인 패전국인 독일에서 태어나 냉전을 겪으면서 자란 세대(1990년대 초반 프랑스로 이주했다) 모국의 참혹한 역사적 기억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아우슈비츠를 다룬 시를 소재로 삼는다는 것' 하면서 자민족의 아픈 상처와 인간의 본성을 작품에 담아왔다. PHB에 설치한 작품의 제목도 유대인 신비주의 카발라 문헌인 <Seder Hekhalot>(The Book of Palaces)에서 차용한 것이다. 키퍼의 작업이 자주 그레 왔지만 이 아트 스페이스에서 더 특별한 이유는 그가 공간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이다. 비코카 지역의 문화적 재생 논의가 일던 무렵, 재단은 키퍼를 이 부지에 초청했고, 그는 이 기계 넘치는 콘크리트 타워 작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당시 피렐리의 CEO였던 마르코 트론케티 프롬페라는 반색하면서 거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키퍼의 수작 목록에 오르게 된 영구 설치 작업이자 PHB 공간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당시에는 이 작업을 위주로 작은 전시만 진행하다가 비센테 토돌리가 아티스트 디렉터를 맡으면서 PHB는 진취적이고 실험적이면서도 심층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획전, 출판,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진정한 '아트 스페이스'로서 성장해오고 있다. 어쩌면 혼란 메시나의 케도처럼 보여도 그 면면을 살펴보면 다분히 참신하게 느껴지는데, 아마도 사리(私利)에 덜 얽매는 구도와 현대미술에 대한 진정성 덕분에 아닐까 싶다. 밀라노가 낳은 20세기의 창조적 지성 조 폰티도 호트레 했을 만한 '공간의 예술화' 사례다. **글 고성연**



3

4

〈Luna Luna: Forgotten Fantasy〉 in New York

예술가들의 전설적인 놀이공원 ‘루나 루나’의 부활

놀이공원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장소다. 입구에 들어서면 현실을 벗어나 기묘하고 매력적인 놀이기구와 독특한 분장을 한 익살스러운 퍼포머가 방문객을 맞이하는, 복잡한 세상을 하루쯤은 잊게 해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이 환상의 세계는 비단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1980년대 예술가들은 이처럼 마법 같은 공간을 상상하며 자신들의 독창성을 더해 남녀노소가 가릴 것 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놀이공원을 만들었다. 무려 37년 만에 미국 뉴욕의 복합 문화 공간 더 셰드(The Shed)에 등장한, 과거 실재했던 ‘루나 루나(Luna Luna)’의 이야기다.



기이하고도 다정한 축제의 장

“터스트 클러너에 신발을 닦고 입장해주세요!” 직원의 친절함 안에서 따라 앞에 놓인 끈끈한 발판에 몇 차례 발을 구르고 난 뒤, 작은 컨테이너 박스식 공간에 들어섰다. 전시장 입구 바로 앞에 위치한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체험형 공간 ‘루나 루나 파빌리온’이었다. 굵은 선과 색면으로 이루어진 기하학 도형으로 장식된 파빌리온 앞에는 주말에 늘어선 긴 대기 줄을 위한 안내봉이 있다. 내부는 얇은 유리벽이 복잡하게 겹쳐 있는 좁은 미로 같은 공간이었다. 낡은 나무 바닥과 기둥 곳곳에서는 텃칠한 페인트로도 숨길 수 없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듯했다. 눈앞의 유리벽을 더듬어나가며 출구를 찾는 짧은 여정 동안, 길을 잃은 다른 관람객들과 몇 번이나 마주치며 눈인사를 나눴다. 아직까지는 다들 대체 이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로 헤매는 모양새였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모두의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웃음이 가득했다는 것. 파빌리온에 이어 만화풍 캐릭터로 꾸민 키스 해링의 회전목마와 격자무늬로 뒤덮인 살바도르 달리의 커다란 지오데식 돔(다면체로 이뤄진 반구형 건축물)을 둘러보던 중, 멀리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소리에 이끌려 다음 전시장인 맥코트 갤러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곳에서는 더욱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길쭉하거나 둥근 형태를 띤 형형색색의 덩어리들이 유쾌한 괴성을 지르며 관람객들에게 치근거렸고, 백발에 검은 목 플라 티를 입은 ‘앤디 워홀’ 3명은 바스키아의 관람차 주변을 서성이며 무언가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는 모습이었다. 한 노부부는 계속 자신들을 따라다니며 새처럼 생긴 인형을 얼굴 앞에 흔들며대는 광대의 장난에 못 이겨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신랑과 신부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조각으로 이뤄진 광대한 채플에서는 어린아이 2명이 ‘결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다. “여기서는 누구나 원하는 상대와 결혼할 수 있어. 그게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답니다!” 어느 순간, 팝 아티스트 케니 샤프의 화려한 공중그네가 조명을 함께 홀로 가동되었다. 이에 맞춰 웅장하면서도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주변 퍼포머들은 이내 방문객들의 손을 잡고 함께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음악과 조명은 이내 공중그네에서 관람차로, 그리고 관람차를 지나 아릭 브라우어(Arik Brauer)의 괴상한 회전목마로 몇 분 동안이나 이어졌다.



1 뉴욕 더 셰드에 부활한 〈루나 루나: 잊힌 환상〉(2024. 11. 20~2025. 1. 5) 전시 모습. Photo by Brian Ferry, Courtesy of Luna Luna LLC 2 1987년 독일 함부르크에 개장한 당시의 루나 루나. Aerial view of Luna Luna in Moorweide park, Hamburg, Germany, 1987. Photo © Sabina Sarnitz, Courtesy Luna Luna, LLC 3 키스 해링과 그의 회전목마. Keith Haring with his painted carousel. Luna Luna, Hamburg, Germany, 1987. Photo © Sabina Sarnitz, Courtesy Luna Luna, LLC



4 키스 해링의 회전목마와 달리 돔. Photo by Brian Ferry, Courtesy Luna Luna LLC 5 복원된 장-미셸 바스키아의 관람차와 소니아 델로네의 루나 루나 입구 아치. 입구 너머 작은 방에는 꼬끼리 탈을 쓴 사람이 보인다. 이곳 ‘폰실리엔드’에서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분장물을 제작하고 착용해볼 수 있다. Photo by Brian Ferry, Courtesy Luna Luna LLC 6 원하는 상대와 결혼할 수 있는 안드레 헬러의 ‘웨딩 채플’은 이성 간의 결혼만 허용되었던 당시 사회에 대한 도발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Photo by Brian Ferry, Courtesy Luna Luna LLC 7 조명, 음악과 함께 무인 가동되는 케니 샤프의 공중그네. Photo by Brian Ferry, Courtesy Luna Luna LLC 8 과거 루나 루나에서 키스 해링의 회전목마를 즐기는 방문객들의 모습. 뉴욕 전시에서 해링의 회전목마를 포함한 대부분의 놀이기구는 역사적 가치와 안전상의 문제로 탑승이 제한된다. Visitors ride Keith Haring's painted carousel. Luna Luna, Hamburg, Germany, 1987. Photo © Sabina Sarnitz, Courtesy Luna Luna, LLC



모두 모여 즐거움을 찬양하라!

21세기 버전의 루나 루나는 2023년 12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아트 디스트릭트에서 첫선을 보인 이래, 이듬해 11월 뉴욕의 더 셰드(The Shed)로 무대를 옮겼다. 비록 예전처럼 놀이기구에 직접 탑승할 수는 없지만, 초기 모습 그대로 복원된 14점의 놀이기구와 체험형 공간을 전시하고, 일부 놀이기구를 무인 상태로 가동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아쉬움을 덜어내고 있다. 특히 뉴욕에서는 푸에르토리코 기반의 퍼포먼스 듀오 폰실리 크레아시옹(Poncilii Creacion)의 퍼포먼스를 더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다정한 옛 루나 루나의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다. 복원 과정을 상세히 담은 사진과 연표, 당시의 드로잉, 노트, 간판, 포스터 등 아카이브 자료를 전시에 포함시켜 루나 루나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렇게 재탄생한 루나 루나의 목표는 단순한 과거 놀이공원의 복원을 넘어, 예술과 상상력을 통해 위태로운 세상에서 살아남고자 한다는 초기 비전의 실현이다. 아직 전시되지 않은 나머지 기구들은 여전히 복원 중이며, 역사적 가치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시용에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최 측은 언젠가는 예전처럼 관람객들이 직접 예술가가 참여한 놀이기구에 올라탈 수 있는, 완전히 작동되는 놀이공원을 구상 중이다. 이를 위해 동시대 작가들과 협력해 실제로 탑승 가능한 놀이기구를 새롭게 제작하고, 지금처럼 순회전을 여는 도시와 공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캐릭터와 이야기를 추가하며 계속 진화해나가고자 한다. 과거 루나 루나는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통적인 화이트 큐브 전시 공간의 벽을 넘어 놀이공원을 예술 공간으로 재정립했다. 일단 더 셰드의 〈루나 루나: 잊힌 환상(Luna Luna: Forgotten Fantasy)〉은 2025년 1월 5일로 막을 내리지만, 앞으로 또 어떤 도시에서 예술과 삶의 경계를 허무는 영감의 공간으로 더 맛지게 거듭날지, 루나 루나의 행보가 사뭇 궁금해진다. 글 김연우(뉴욕 통신원)

루나 루나의 여정: 탄생에서 부활까지

루나 루나는 1987년 6월 5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오스트리아의 팝 스타 안드레 헬러(André Heller)는 어린 시절 방문했던 대도시 근교의 구식 테마파크인 ‘루나 파크’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예술가들이 설계한 놀이공원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에 예술의 힘을 더한다면 전후 황폐한 도시의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탈출구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독일의 한 잡지에서 지원금을 받은 헬러는 세계 각국을 돌며 전 세계 예술가들을 이 프로젝트에 동참시켰다. 살바도르 달리, 데이비드 호크니, 로이 리히텐슈타인같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던 작가들부터 아릭 브라우어와 만프레트 다익스 같은 비엔나의 작가들, 그리고 당시 떠오르던 뉴욕의 젊은 작가 키스 해링과 장-미셸 바스키아 등이 여기에 합류했다. 이들은 낡은 놀이기구를 새롭게 장식하거나 독창적인 체험형 공간을 설계했으며, 놀이공원의 포스터, 티셔츠, 굿즈, 쇼팽백 등을 직접 디자인해 루나 루나를 완성해나갔다. 당시 루나 루나가 열린 함부르크의 무어바이데(Moorweide) 공원은 놀이기구, 퍼포먼스, 불거리가 넘치는 축제의 장소로 변모했다. 소니아 델로네(Sonia Delaunay)의 알록달록한 아치형 입구가 사람들을 환상의 세계로 초대했고, 모니카 길싱(Monika Gil-Sing)의 다채로운 깃발들이 공원 곳곳에서 나부꼈다. 방문객들은 바스키아의 낙서로 장식된 관람차와 키스 해링의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로 이루어진 회전목마, 케니 샤프의 활기찬 회전그네에 올라타며 시간을 보냈다. 리히텐슈타인의 유리 미로와 만화경 같은 달리의 거울 돔을 탐험하거나, 감각을 자극하는 호크니의 그림자 음악회를 감상하기도 했다.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요소도 있었다. 다니엘 슈퍼리(Daniel Spoerri)는 히틀러와 나치의 상징 총리 관저(Reich Chancellery)를 본떠 ‘쓰레기 총리 관저’ 이름 붙인 화성실 입구를 제작했다. 입구 기둥을 장식한 배설물 더미 형태의 조각상에서는 증가가 뿜어져 나와 더욱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안드레 헬러는 동성 간의 결혼이 금지된 사회에 어떤 상대와도 결혼 가능한 ‘웨딩 채플’을 선보이기도 했다. 방문객들과 뒤섞여 공원 곳곳을 거니는 유랑 극단의 커다란 광대, 동물 분장을 한 사람들, 춤추는 수녀들과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공원에 더욱 활기를 더했다. 루나 루나에는 3개월 정도에 걸쳐 약 25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이러한 인기로 헬러는 세계 투어의 꿈을 꾸기도 했다. 그러나 폐장 후 매각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안타깝게도 루나 루나의 모든 창작물은 긴 소송 끝에 텍사스 시골에 위치한 창고에 방치된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잊힌 무렵, 2019년 마이클 골드버그와 힌합 뮤지션 드레이크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드림크루(DreamCrew)가 우연히 루나 루나의 이야기를 접하고는 이를 통째로 매입해버린다. 이들이 이끄는 새 팀은 해체된 놀이기구의 재조립을 위한 설명서조차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루나 루나의 부활을 위한 복원 작업을 시작했다. 당시의 사진과 도면에 의존해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루나 루나를 재개장하는 과정에서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과 2년이라는 시간이 투입되었다.



4 키스 해링의 회전목마와 달리 돔. Photo by Brian Ferry, Courtesy Luna Luna LLC 5 복원된 장-미셸 바스키아의 관람차와 소니아 델로네의 루나 루나 입구 아치. 입구 너머 작은 방에는 꼬끼리 탈을 쓴 사람이 보인다. 이곳 ‘폰실리엔드’에서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분장물을 제작하고 착용해볼 수 있다. Photo by Brian Ferry, Courtesy Luna Luna LLC 6 원하는 상대와 결혼할 수 있는 안드레 헬러의 ‘웨딩 채플’은 이성 간의 결혼만 허용되었던 당시 사회에 대한 도발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Photo by Brian Ferry, Courtesy Luna Luna LLC 7 조명, 음악과 함께 무인 가동되는 케니 샤프의 공중그네. Photo by Brian Ferry, Courtesy Luna Luna LLC 8 과거 루나 루나에서 키스 해링의 회전목마를 즐기는 방문객들의 모습. 뉴욕 전시에서 해링의 회전목마를 포함한 대부분의 놀이기구는 역사적 가치와 안전상의 문제로 탑승이 제한된다. Visitors ride Keith Haring's painted carousel. Luna Luna, Hamburg, Germany, 1987. Photo © Sabina Sarnitz, Courtesy Luna Luna, LLC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취향의 발견’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달을 거듭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물질의 세계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온몸으로 느낄 때 비로소 만족한다. 국내 소비트렌드를 전망한 책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물성 매력(experiencing the physical)’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오감을 자극하는 물리적 체험을 갈망한다. 그리고 공간이야말로 그러한 체험이 응축된 장(場)이다. 특히 팬데믹 이후 집과 갤러리는 거주와 관람의 기능을 넘어 개인의 취향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무대로 변모했으며, 더 이상 수동적인 배경에 머무르지 않는다. 어떤 예술가는 공간을 사유의 도구로 삼아 관객이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든다. 공간이 능동적으로 기능할 때, 그곳은 평범한 장소가 아닌 하나의 경험이 된다. 지난 11월 나란히 막을 올린 디뮤지엄의 <취향가옥: ART IN LIFE, LIFE IN ART>와 김리아갤러리의 <Toi Toi Toilette>전은 바로 이 물성의 매력과 공간의 힘을 탐구하는 전시다. 전자는 상상 속 공간을 실현하고, 후자는 내밀한 실제 공간을 예술로 전환한다. 두 전시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면서도 쉽게 지나치는 공간의 본질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2



3



4

1 듀플렉스 하우스에서는 신예와 거장, 빈티지와 컨템퍼러리 등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과 가구를 전시해 맥시멀리스트의 개성을 느낄 수 있다. 공간 가운데 위치한, 큰 눈이 돋보이는 아이 조각은 스페인 작가 하비에르 카에하의 'Heads'(2020). 2, 3 '모자(帽子)'를 상징한 두 페르소나의 서로 다른 취향이 공존하며 만들어진 스톤릿 하우스. 두 공간의 미묘한 균형과 대비를 관찰하는 즐거움이 있다. 티 소울리에 어머니의 디자인 품은 다카하시 준의 공화적인 풍경화, 영상감독인 아들의 방에는 199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아이오카비 사이의 작품을 배치했다. 4 올랜디스트 아내와 요리사 남편의 취향을 녹여낸 테라스 하우스의 창실. 침대 머리맡에 걸린 작품은 20세기 후생미술의 거장 프랭크 스텔라가 1990년대에 제작한 판화로, 화려한 색채와 독특한 구성이 공간에 위트를 더한다. * 1~4 이미지 제공, 디뮤지엄

상상의 집, 취향가옥

“집은 삶의 보물 창고여야 한다”라는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의 말처럼,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보물이 담긴 공간이다. (취향가옥)은 이 명제를 가장 극적으로 시각화했다. 이곳에선 가구와 예술품을 그럴듯하게 진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5개의 상징적 페르소나를 설정해 각각 다른 취향의 집을 완성한다. 집 안을 채운 물성 하나하나가 그 주인의 정체성을 대변하고, 취향의 정수를 오롯이 드러낸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2개의 세계가 펼쳐진다면, 그 집의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질까? 첫 번째로 만난 스플릿 하우스(Split House)는 20대 영상 감독 아들과 50대 티 소울리에 어머니의 취향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한쪽에는 애니메이션과 그래픽 스타일이 돋보이는 유 나카비와 아이오카비 사야의 작품이, 다른 쪽에는 김환기와 박서보의 마스터피스가 걸려 있다. 서로 다른 예술 세계가 한 집 안에 공존하지만, 묘하게도 이질감보다 조화가 느껴진다.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집으로서 연결된 구조는 오늘날 가족의 복잡한 관계와도 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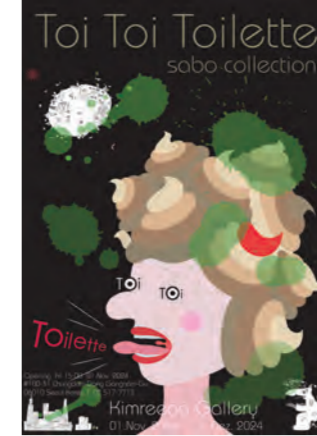
테라스 하우스(Terrace House)는 웰니스에 관심 많은 30대 부부의 집으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따뜻한 공간이다. 다이닝 룸에는 이강소, 클로드 비얌라, 유카리 니시의 화려한 회화 작품이 벽을 채우고, 그 중심에서는 역동적 품위를 추상화한 서세옥의 대형 작품이 시선을 붙잡는다. 테라스에는 로마넬리 부부의 아트 퍼니처와 도예 오브제가 놓여 있고, 그 주변에는 셰이어 고메즈와 알폰소 곤잘레스 주니어의 회화 작품이 어우러진다. 이어지는 듀플렉스 하우스(Duplex House)는 수직 자체가 취향이 되는 곳이다. 주인은 40대 갤러리스트로, 예술 작품에 대한 깊은 애정과 컬렉터의 집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복층 구조의 집에는 백남준의 설치작품, 알렉산더 칼더의 회화 작품, 하로시와 하비에르 카에하의 독특한 현대미술 작품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어 공간 자체가 거대한 미술관을 연상시킨다.

집은 사는 사람의 감정과 취향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공간이다. 디뮤지엄 다섯 페르소나의 집은 그야말로 ‘사람의 흔적을 담아낸다. 타인의 집을 들여다보는 경험은 곧 자신의 집을 되돌아보는 일로 이어진다. ‘나는 어떤 공간을 꿈꾸고 있는가?’ 전시장을 나서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다. 지금 나의 집은 그 질문에 얼마나 가까이 닿아 있을까.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가구나 벽에 걸린 작은 그림 하나가 사실은 나의 취향으로 촘촘히 엮인 서사였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모른다. (취향가옥) 전시는 오는 5월 18일까지.

실제하는 가장 사적인 공간, 사보 컬렉션

16세기 유럽 귀족들이 하나둘 모은 경이로운 물건들. 전 세계에서 가져온 진귀한 공예품으로 가득 찬 그 방을 사람들은 ‘분터카머(Wunderkammer)’, 즉 ‘호기심의 방’이라고 불렀다. 모든 사물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 있는 그 공간은 소유자의 취향과 세계관을 집약한 장소였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분터카머는 어디에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 공간이 짐실이나 서재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컬렉터이자 작가 사보(SABO)는 예상 밖의 공간에 주목했다. 바로 화장실이다. 보통 화장실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고 몸을 씻는 공간 정도로 인식되지만, 사보는 이곳을 하루의 시작과 끝에 만나는 가장 본능적인 공간,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 가장 내밀한 전시장이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보의 여정은 뜻밖의 경험에서 시작했다. 1990년대 독일 유학 시절, 상류층 친구의 집에 초대받은 그는 화장실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 사보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세상에, 그건 마치 갤러리 속 갤러리 같았어요. 엘레강스 그 자체였죠”라고 말했다. 변기와 세면대의 형태는 물론, 타일과 벽지의 색감 등 모든 것이 하나의 정교한 큐레이션처럼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그 순간 사보의 머릿속에 ‘화장실도 예술 공간이 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스쳤고, 이는 그의 컬렉팅 일대기에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그는 독일 전역의 빈티지숍을 돌아다니며 남다른 안목으로 가구와 조명, 각종 오브제를 수집했다. “어떤 사람은 우스갯말로 ‘독일에서 암모니트까지 들고 온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런데 막상 보고 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지던 참나, 우연히 하숙하던 집의 지하 와인 저장고를 발견하는 행운도 찾아온다. 깊고 서늘한 공간, 안정된 온도 등 사보의 눈에는 빈 캔버스 같은 공간으로 보였다. 그는 주인 할머니의 허락을 구해 지하실을 자신의 ‘호기심의 방’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아이템을 지하실에 차곡차곡 쌓아갔다. 그곳에 모인 건 그저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 공간의 공기까지 바꾸는 물성이었다. 조그마한 도자기, 독특한 램프, 오래된 나무 의자 하나까지, 모든 것이 그 공간에 새로운 공기와 분위기의 흐름을 좌우한다. 그렇게 해서 와인이 가득해야 할 지하 저장고는 호기심과 취향으로 가득 찬 사보의 분터카머로 변모했다.



5



6



7

5 <Toi Toi Toilette> 전시 포스터. 6 3층 전시장의 트리 모양 설치물에 배치된 각종 오브제. 오른쪽 벽면에 걸린 작품은 사보의 'Toi, Toi, Toilette'(2022). 7 베르너 판톤의 1960년대 라운지 চে어와 스톤, 그리고 범람에 예나멜 패턴트를 칠한 빅 플라워팟 펜던트 조명. 독특한 패턴이 돋보이는 벽면은 1970년대 독일 박지. 8 1층 전시장 모습. 1970년대 루이지 콜라나기 디자인한 빌레로이엔보흐 세면기와 변기. 9 1950년대 올리버스 테오도로 쾰마가 디자인한 크리스탈 샴푸리예. 패티 기치의 1960년대 의자와 빌레로이엔보흐의 욕조와 화장실 도기 세트. * 5-9 이미지 제공, 김리아갤러리

삶 속의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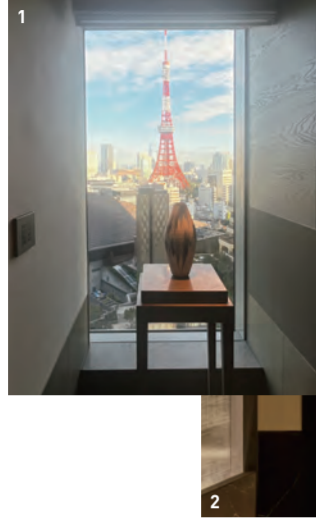
이 모든 이야기는 <Toi Toi Toilette>전으로 귀결된다. 사보의 고유한 심미안이 담긴 이 전시는 그가 지금까지 수집한 오브제와 디자인 가구, 예술품으로 화장실이라는 일상의 공간을 예술로 재탄생시킨 결과물이다. 지난달 막을 내린 이 재미난 전시 풍경을 되돌아보자면, 1층에서는 독일 베를린에서 활동했던 디자인 거장 루이지 콜라나기와 유서 깊은 라방 브랜드 빌레로이엔보흐의 협업으로 탄생한 1970년대 화장실 컬렉션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현대의 미니멀리즘 욕실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며, 유기적인 곡선과 강렬한 색감이 돋보이는 변기와 세면대는 그 자체로 예술 작품처럼 자리한다. 공간을 둘러보며 당대 독일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로웠다. 사보는 독일의 토일렛 문화를 이야기하며 “참 독특해요. 사람들이 화장실에 오래 머무는 편이거든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목욕 가운을 걸치고 오디오를 틀어둔 채 커피를 마시며 신문 읽어요. 그러다 천천히 목욕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죠”라고 전했다. 그 시절, 사보가 유럽 상류층의 화장실을 보고 놀라움에 사로잡혔던 것이 절로 이해된다. 이런 화장실이라면 누구라도 천천히 머물며 신문을 읽거나 조용히 명상에 잠기고 싶어질 것이다. 2층으로 올라가면 컬렉팅의 중심이 가구와 조명으로 옮겨 간다. 그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바우하우스의 철학이 담긴 모듈형 가구와 한 시대를 풍미한 빈티지 조명이 어우러진 공간을 지나 3층으로 올라가면, 예술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오브제가 가득하다. 작가의 이름이나 제작 연도를 몰라도 벽지의 문양, 조명의 색감, 작은 오브제의 배치 하나만으로도 공간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사보의 컬렉션은 화장실이라는 사적 공간에 예술의 기운을 불어넣으며, 기능과 미감이 공존하는 새로운 공간의 가능성을 전한다.

디지털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 우리는 취향을 찾아 스크롤을 내린다. 하지만 ‘험한 취향은 멀리 있지 않다. 취향가옥의 페르소나 하우스와 사보의 화장실처럼, 나의 집과 일상에 스며 있다. 결국 중요한 건 ‘발견하는 시선’이다. 그 시선을 통해 바라본다면, 평범한 공간도 나만의 분터카머가 될 테니. 라방 아트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매일 머무는 집이 갤러리가 되고, 일상의 공간이 예술로 확장되는 순간.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취향의 진면목을 온전히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글 김주희(객원 에디터)



1 상대적으로 낮은 건물(13층)과 녹지가 조화를 이루는 자누 도쿄의 객실에서 보이는 도쿄 타워 모습. 대부분의 객실에는 도쿄 타워나 정원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전용 발코니가 있다. Photo by 고성연

2 복합 단지 아자부다이 힐스에 있는 자누 도쿄의 프런트 데스크. 자누 도쿄는 '팬덤'이 강력한 아만(Aman)의 첫 자매 브랜드인 '자누(Janu)'의 플래그십 호텔이다. 아만의 오랜 파트너 장-미셸 게티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았다. 아만이 고유한 평화로움을 선사한다면, 자누는 열거없는 연결의 감성을 추구한다.



2



자누 도쿄(Janu Tokyo)

‘즐거움 연결’을 꿈꾸는 뉴 럭셔리

한 브랜드에 꽃혀 여러 도시의 지점을 '도장 깨기'처럼 찾아다니는 고객이 많을 정도로 '팬덤'이 강력한 아만(Aman)의 첫 자매 브랜드! 자누(Janu)는 이처럼 간단한 수식만으로도 많은 관심을 누려온 호텔업계의 새 이름이다. 아만 그룹의 자매 브랜드로 전혀 다른 콘셉트와 분위기를 추구하는 자누 계열 1호 호텔이 일본의 수도 도쿄에 지난해 봄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다양한 평이 들려오자 궁금증이 더 치솟았다. 이는 자누 도쿄(Janu Tokyo) 자체가 새 브랜드의 플래그십 호텔로서 얼마나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을지와 더불어 아자부다이 힐스가 빛어내는 색다른 도시 풍경에 대한 호기심이기도 했다. 이 호텔이 자리한 아자부다이 힐스는 예술화를 활용한 랜드마크 메이킹으로 남다른 내공을 지닌 모리 그룹의 야심작이어서다. 특히 자누는 오는 2027년께 서울에도 진출할 예정이라 더 눈길을 끈다.

도쿄는 언덕이 많기로 유명한 메트로폴리스다. 그래서 사카, 혹은 자카라는 발음의 언덕(坂)이 들 어간 지명이 무척 많다. 비슷한 맥락에서 '부동산 재벌'로 익숙한 브랜드인 모리 그룹은 '힐스(hills)'로 끝나는 이름의 복합 단지를 여럿 건설하고 있는데, 아마도 도쿄에 기본 적이 있다면 대부분 방문 했을 복합 단지 '롯데 힐스'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상점과 오피스 시설, 그리고 정사부에 있는 모리 미술관 등을 품은 54층짜리 모리 타워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롯데 힐스와 같이 도쿄 미나토 구에 속한 아자부다이 힐스는 모리 그룹이 야심 차게 재개발에 나선 새로운 랜드마크로 우리나라에서도 노들섬 프로젝트로 잘 알려진 토머스 헤더윅을 비롯해 여러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참여했다. 현재 도쿄에서 제일 높은 마천루인 모리 JP 타워(330m)를 비롯해 주거 공간(레지던스), 학교, 쇼 팡플, 에르메스를 위시한 럭셔리 브랜드들의 매장, 갤러리 등을 끼고 있다. 이처럼 화려한 도심의 복합 단지에 차별된 호텔이 들어서는 건 당연지사. 그 주인공이 바로 지난해 봄 문을 연 자누 도쿄(Janu Tokyo)로 1백22개 객실과 스위트룸, 방대한 웰니스 센터를 갖춘 13층짜리 럭셔리 호텔이다.

3 개인적 성취감과 휴식 사이 균형을 찾는 '웰니스 스테이'를 지향하는 만큼 자누 웰니스 센터는 4,000㎡로 도쿄 럭셔리 호텔 중 가장 큰 규모를 뽐낸다. 4 일본식 숯불구이 스타일인 스미야마키 오마카세로 인기 높은 스미(SUMI), 5 러시아식 반아와 튀르키예식 허삼, LED 테라피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라이빗 스파도 자누 도쿄의 자랑이다.



3

‘모던 어번 빌리지’ 속 세련된 안식처이자 교감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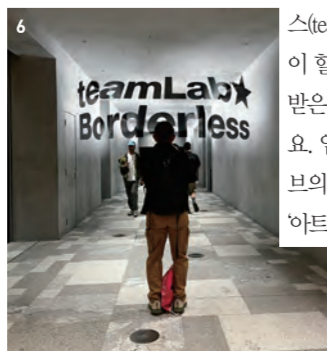
산스크리트어로 아만은 '평화(peace)', 자누는 '영혼(soul)'을 뜻하는 어원을 각각 품고 있다. 전자가 '자연 속 힐링'과 '프라이비시'를 강조하는 고유한 안식처를 표방한다면, 후자는 목표 달성과 내면의 만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들에게 불어넣는 사교적이고 활기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그래서일까. 도쿄 지요다구 오테마치의 숲속에 자리한 아만 도쿄의 '젠' 감성 어우러진 객실에서는 임피리얼 팰리스 가든의 정적인 조경을 눈에 담을 수 있고, 동서양의 디자인이 현대적으로 만난 듯한 자누 도쿄의 화사한 객실(6~13층)에서는 도시의 유혹 같은 랜드마크인 도쿄 타워 전망을 즐길 수 있다. 81헥타르 규모의 아자부다이 힐스는 모리 그룹에서 커뮤니티와 웰빙을 중심으로 한 '모던 어번 빌리지(Modern Urban Village)' 조성을 목표로 30여 년에 걸쳐 개발을 진행해온 프로젝트인데,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연결(connection)'과 '영감(inspiration)', '탐험(exploration)'을 지향하는 자누의 브랜드 가치와도 잘 맞아떨어진다.

사실 하나의 호텔 브랜드, 그것도 플래그십인 1호점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 그래도 자누 도쿄에서는 입구부터 호텔 내 곳곳의 공간을 아우르는 유쾌하고 활발한 분위기에서, 그리고 직원들의 씩씩하고 적극적인 태도에서 특유의 '열린' 지향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센스 있는 퓨전 오마카세로 명성이 자자한 스미(SUMI), 인기 만점 이탈리아 레스토랑 메르카토, 최상급 광둥 요리를 선사하는 중식당 후징, 도쿄 최고의 미슐로지스트 나구모 슈조(Shuzo Nagumo)의 레시피를 맛볼 수 있는 자누 바, 맛깔나고 세련된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자누 파티스리 등 8개에 이르는 다양한 F & B 공간은 커다란 활력소가 된다. 아자부다히 힐스의 다채로운 먹거리까지 감안하면 다나카 노리코(Noriko Tanaka) 자누 도쿄 총지배인의 표현처럼 그야말로 '많은 이들의 (즐거움) 사회적 만남을 권장하는' 풍부한 식도락의 전당이다. 또 도쿄의 럭셔리 호텔 중 가장 큰 규모(4,000㎡)의 웰니스 시설을 자랑하는데, 이 역시 함께 나누며 즐거움을 키우는 '소셜 웰빙' 개념을 기치로 삼고 있다. 스파링·복싱·요가·필라테스·골프 클래스를 운영하는 운동 스튜디오 5개를 포함한 다양한 공간을 통해 그룹 수업이 가능하며, 7개의 트리트먼트 룸과 25m 길이의 온수 풀, 2개의 스파 하우스 등을 갖추었다.

이미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은(가장 많이 찾는 3대 상위 국적이다) 자누 도쿄에 머무는 이점 중 하나에는 '예술'도 있다. 아자부다이 힐스는 지하철 노선 가미야초(히비야선)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역은 전 세계에서 물 밀듯 방문객이 찾아오는 블럭버스터 디지털 미술관인 팀랩 보더리스(teamLab Borderless)와도 지척에 있다. 또 메가 갤러리 중 하나인 페이스갤러리 도쿄도 아자부다이 힐스에 입성해 현대미술 애호가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일본 전통 스타일과 유럽의 영향을 받은 객실의 사칸(플라스터) 벽 장식을 비롯해 현대적인 미술 작품이 호텔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요. 입구에 있는 천장에는 '연결을 상징하는 시메나와(shimenawa, '정스러운 밧줄'이라는 뜻) 모티브의 작품도 걸려 있지요." 다나카 노리코 총지배인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호텔 자체에서 제공하는 아트 산책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을 강조했다. 글 고성연

6 전 세계에서 방문객을 맞이하는 디지털 미술관인 팀랩 보더리스(teamLab Borderless)는 아자부다이 힐스에 예술적 역동성을 불어넣는다. 팀랩 소속 갤러리인 페이스갤러리 도쿄도 아자부다이 힐스에 입주해 있다. Photo by 고성연

* 2~5 이미지 자누 도쿄 제공



6



4

5

●● Exhibition in Collaboration with Kimreea Gallery ●●

누군가 예술가를 가리켜 '시공간을 조각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시공간'이란 수학적으로 '다양체(manifold)'라고 하는데, 이 개념 자체를 학문적으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강도를 지닌 채 여러 방향으로 나아가는 다양성을 뜻한다'는 점에서는 존재의 근원을 열망하듯 무수히 많은 시도를 하는 예술가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표현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시공간이 존재하기 전, 혹은 그 순간의 근원을 바라보는 예술가들의 작업 세계는 어떨까요. 오는 4월 (스타일 조선일보)에서 김리아갤러리와 협업해 진행할 예정인 전시 <빛 없이 있던 것(Ce qui fut sans lumière)>은 '흙'이라는 물질으로, 그리고 이와 상징적으로 연결되는 존재의 근원에 가까이하고자 자연과 우주 같은 주제를 부단히 탐구해왔다는 공통분모를 지닌 3인의 작가 이은영, 오다코, 박예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작업에 담아내는 '빛'이라는 요소에도 주목했습니다.

'빛 없이 있던 것(Ce qui fut sans lumière)'이라는 전시 제목은 프랑스 시인 이브 본푸아(Yves Bonnefoy)의 시집에서 따온 문구입니다. 그는 빛과 어둠, 삶과 죽음에 뿌리내린 존재의 이중구조를 바탕으로 그 근원에 대한 회상과 꿈을 노래한 작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해석과 단상, 함의를 품은 '열린 제목'으로 시적 정서와 은유를 품고 있는 3인의 작업 세계와도 결을 같이합니다.

시인의 꿈이 미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야 할 근원에 대한 꿈'이고, 그러한 여정 속에 거듭 흠여지고 생성되는 심상의 힘을 붙잡고 텍스트로 승화해나갈수록 도달하고자 하는 3인의 예술가가 보여주는 섬 없는 창조적 모색과 몸짓도 '현존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빛의 미학'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우연과 필연의 끝없는 반복 같은 이들의 작업 세계를 지켜보노라면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건 우리가 아니다. 예술 작품 스스로가 존재하기 위해 우리를 참가자로서 창조하는 것이다"라는 한 철학자의 말에 동화됨을 느낍니다. 글 고성연

빛 없이 있던 것

Ce qui fut sans Lumière

Yelim PARK

박
예
림

모래가 그려나가는 순간

모래는 암석이 마모되거나 침식되는 과정을 통해 탄생하는 자연물이다. 눈에 보이는 가장 작은 자연물인 모래는 견고한 동시에 유동적이다. 바람에 날아가고, 물을 만나 건조하면 굳는다. 이처럼 가변적 속성을 지닌 모래는 하늘과 땅의 중간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암석의 무게에서 벗어나, 물을 따라 흘러가고 바람을 타고 멀리 떠난다. 땅에 귀속되는 동시에 벗어나 있다는 의미에서, 모래는 하늘과 땅을 넘나드는 중간적 존재다. 이런 성격은 자연스럽게 기억과도 연결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떠올리는 것 중 모래시계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거나, 상실되는 기억을 비유하는 이미지로 활용된다. 애초의 탄생 과정이 그렇듯 모래는 짙어가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의 모래알로 남을 수 있다. 모래는 이처럼 가변적이고 말 그대로 중간에 떠 있는, 없는 듯하면서도 실재를 지닌 존재다. 박예림은 이러한 모래의 성격에 주목하고 회화 작업으로 풀어낸다.

박예림의 회화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커다란 흐름이다. 역동적인 동시에 고요한 흐름이 화면에 담긴다. 솟아오르는 파도처럼 보이는 동시에, 바다가 밑에 펼쳐진 비랑으로 보이기도 하고, 안개가 낀 산맥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나이트가 보이는 나무의 단면을 연상하거나(Wind Pattern, 2023), 동굴의 벽면(Map 연작, 2023-24)을 연상할 수도 있다. 이런 상상을 살펴보면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 그리고 고체와 액체 사이를 넘나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질감이 두드러지는 동시에 퍼지고 확장하는 힘이 화면에 담긴다. 파도로 표현하는 바다에 대해 언급하는 〈석도화론〉을 참조 대상으로 삼은 것처럼,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에게 아날로지(analogy)는 전통적 기법의 연장선에 있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박예림은 모래의 가변적이고 중간적인 성격을 살리면서 회화 작업을 한다. 그렇다면 박예림에게 모래라는 재료는 무엇일까? 모래에 흐름을 만들어내는 대신, 전면을 같은 색으로 고르게 칠하고 덮는 방법도 있다. 그렇지만 박예림에게 중요한 점은 모래의 성격에 주목해 흐름을 창출하고 기억과 감각을 끄집어 오는 데 있다.

김리아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 〈둥근 음을 타고〉(2024)에서는 바람을 담은 회화를 선보였다. 바람 표지판(2023-24) 연작은 작가가 경험한 바람이 표현된 것이다. 바람을 표현하는 일은 추상적이지 않다. 시각화한 점은 물론, 바람을 경험한 장소는 구체적인 경험과 시간, 그리고 장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래시계의 모래와도 같이, 박예림에게 모래란 기억의 매개체가 된다. 희미해지고 덧없는 것 같지만, 그 순간 내가 겪은 구체적인 감각이 회화를 통해 다시 활성화된다. 종이 위에 스며들어 하나가 되는 것과 달리, 모래는 표면에 붙어 있다가 작업 과정에서 떨어지나기도 한다. 어쩌면 기억 또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남는 것과 남지 않는 것 사이, 기록할 수 있는 것과 기록할 수 없는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환기되는 것이 작은 알갱이로 명확히 남는다.

일본의 시인 이시카와 다쿠보쿠(Takuboku Ishikawa)의 유명한 시집 중 〈한 줌의 모래〉(1910)가 있다. 그중 '나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장(chapter)에서 화자는 모래를 보고 사랑하는 이를 떠올리고, 슬픔을 노래한다. 이 노래에서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새기도 하고, 한 줌의 텅 어리가 되기도 한다. 그의 짧은 시(단카) 형식 안에서 추억과 감정이 형태를 이룬다. 박예림의 회화에서 모래와 바람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의 회화에서 모래는 순간적인 기억과 감각을 붙잡는 재료가 된다. 화면에 퍼진 힘은 모래와 함께 종이 위에서 깊이감을 만든다. 그러면서 보는 사람에게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글 콘노 유키(Yuki Konno)



1 박예림, '눈지 않는 고요와 튀어오른 적막으로'(부분), 한지에 먹과 모래, 162.2×130.3cm, Courtesy of the artist

2 박예림, '삼라 표지', 2023, 한지에 먹과 모래, 55×55×55cm, Photo by 고정균

3 박예림, 'Hoarfrost', 2024, 한지에 호분, 32×41cm, Photo by 구익진

4 박예림, '아침에 뜬 거울', 2023, 한지에 호분과 먹, 모래, 60.8×50cm, Courtesy of the artist



Dakyo OH
오
다
교



땅을 우리러보며

인간에게 자연이란 어떤 존재일까? 어쩌면 이 질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문일지도 모른다. 도시에서 보이는 자연은 인간에게 길든 존재가 된 지 오래다. 길들었다는 인식은 인간에게 진짜 자연은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져다준다. 그런데 '길들었다'는 인식은 자연에만 해당하는 것일까? 그 안에 일방적이지 않은, 상호 간섭적인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인간 또한 자연에 의해 길든다. 길든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보이지 않는 바다의 깊이를 가늠한다고 하자. 웅장하고 광범위한 자연 앞에서 드는 생각과 감정은 이 크나큰 자연, 그 자연이 내포하는 심오한 힘에서 유래한다. 인간이 보는 곳에 자연이 있고, 자연이 있는 곳에 인간이 있을 때, 즉 같이 서게 될 때, 자연과 인간은 상호적으로 연관된다. 바뀌 말해 함께 호흡하게 된다.

오다교의 회화에서 자연과 인간의 호흡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연을 보고 놀라거나 감동할 때, 작가는 이 호흡에 깊숙이 들어간다. 'You Will Shine Forever and Ever II'(2019)를 보면 밤하늘처럼 심오한 공간이 펼쳐진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흙을 재료로 다룬다는 점이다. 하늘을 보고 있던 흙이 하늘이 된다. 흙이 땅을 내려다보는 시선이 될 때, 오다교가 회화 작품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순환적 관계가 아닐까. 지상에서 살던 인간은 언젠가 맞이할 삶의 끝에서, 종종 말하는 표현처럼 흙으로 돌아간다. 육체가 떠난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영혼은 자유롭다는 표현처럼 우리는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다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의 이야기는 지상에서 종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늘이나 우주 같은 더 심오한 곳까지 확장된다. 그 안에서 삶과 죽음, 그리고 탄생과 소멸이 고리처럼 이어진 관계야말로 오다교가 자연을 바라보고 회화로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라 할 수 있다.

오다교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개인전 제목 <am is are>(마이프갤러리, 2023)에도 나타나 있다. '나의 존재는 당신의 존재, 혹은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의 존재'로 해석할 수 있는 동명의 회화 작업도 전시에서 소개되었다. 'am is are'(2023) 또한 흙을 재료로 사용했다. 지구에서 바라보는 달처럼, 혹은 달에서 본 지구처럼 월형 캔버스는 나라는 거울(상)이자 당신의 거울(상)이 되어 서로를 대면시켜준다. 최근 작업에 이르러서는 바다와 운슬에 주목했다. 'Walk on Water'(2023) 연작을 보면 반짝이던 파도가 흙과 모래, 운모, 그리고 안료로 표현되어 있다. 동적이지만 멈춰 있음이 보여주는 것은 (제목처럼)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긴장과 심호흡의 반복이 아닐까. 숨이 멈추는 듯한 감각은 순간적일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서는 자연과 인간 둘 다에 미세한 생기가 맴돈다.

한편 'still I-III'(2023)를 보면, 바다의 표면이 떠오르는 동시에 밑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장소로도 보인다. 흙은 사실 바다와 아무 상관 없는 것은 아니다.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흙은 바다의 바탕을 이룬다.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곳은 해저라는 땅이다. 다시 보니, 오다교의 회화에서 바다는 수평선 대신 수면을 강조한다. 그가 숲뿐 아니라 하늘, 바다를 표현할 때 흙을 다룬다면, 그것은 지금 서 있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을 드러내고자 함이다. 자연도 인간도 땅에서 태어나 땅으로 돌아간다. 오다교의 회화는 땅처럼 넓고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숙하다. 그 안에서 흙이라는 재료는 더 크나큰 자연의 시간축으로 세상을 보고 인간과 자연의 삶을 생각하는 태도, 말하자면 땅을 우리러보는 태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글 콘노 유키(Yuki Konno)

1 오다교, 'am is are', 2023, Pipe Gallery, Seoul, Courtesy of the artist. 이미지 제공: 마이프 갤러리
2 오다교, 'Advent I', 2024, Soil and charcoal on hemp cloth, 130.3×162.2cm. Courtesy of the artist
3 오다교, 'Halo I', 2022, Soil, Black sand, Charcoal, Pigment on panel, 227.3×145.5cm. Courtesy of the artist
4 오다교, 'still I', Soil, Sand, Pearl and Shell on hemp cloth, 112×194cm. Courtesy of the artist

Eun Yeoung LEE

이 은 영

소성에 소생이 함께하며

사물의 어떤을 말해주는 것은 주인의 성격이 주어진 것이다. 내가 어디서 산 것, 친구가 어느 날 나에게 준 것. 우리는 사물을 다른 사물과 구별할 때 그렇게 말한다. 주인의 성격이란 나와 당신으로 또렷이 구분한 후 나에게만 무게가 놓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인의 성격은 부재를 선취한다. 한 사물에 주인의 성격이 주어졌을 때 '나라는 존재의 부재를 선취할 뿐만 아니라 타자가 들어설 자리를 제공한다. 이은영의 작품을 보면, '아드로계의 정원(2017)의 오브제와 디스플레이 방식, '그 언덕에 아직 사람이 있었다(2016~17)의 수집된 건축 파편과 도자의 만남, '빛은 돌들 사이에서 기다린다(2018)에서 영상이 묘비와도 같은 물체에 비치는 것을 보면, 미술 작품인데도 누군가의 유물을 연상시킨다.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고 무엇을 떠올렸을까?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온 시간성이다. 그 과거는 가까운 과거일 수도 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람이 소지하던 물건처럼, 반대로 전에 살던 사람의 온기가 담긴 유품처럼, 작품은 거기에 있다. 이은영이 드로잉과 영상을 병행해 작업할 때, 그의 오브제가 갖(지 못하는) 위치는 시간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은영의 작품에는 시간적 흐름이 혼적처럼 표시된다. 시간적 흐름은 작가가 다루는 도자라는 재료에 그 출발점을 둔다. 형태를 만들고 건조한 다음 구워 만드는 소성(燒成) 과정이 전제된다. 고온을 견디고 나온 결과물에 보이는 것은 재료의 변화뿐만 아니다. 2019년의 개인전 <밤을 달여 놓아두었다>(아마도예술공간)에서 작가는 누군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사라진 장소를 추억했다. 구체적인 출처 없이—기억은 모든 사람에게 출처로 보내주듯이, 우리는 오브제를 보고 지나온 시간을 상상한다. 그가 도자와 기성품, 자연물을 같이 선보이는 이유가 있다면, 시간적 흐름을 담기 때문이다. 소라껍데기의 시간, 사들기 시작한 꽃, 그리고 도자는 모두 멈춘 시간 안에 있다. 그렇다고 멈춘 시간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나온 시간들이 현재에 오버랩(overlap)되어, 보는 사람에게 의해 없는 주인의 자리에 타자가 대입된다. 타자가 대입하는 대상은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본인과 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때 시간은 현재와 과거가, 나와 타자 사이에서 또다시 겹치게 된다.

2023년의 개인전 <먼지>(봄화랑)에서 소개한 도자 작품은 주름이 특징적이었다. '가라앉음', '접힘', '쌓음', 그리고 '지움'으로 명명된 작품은 과거완료형 상태에 있다. 이 형태는 종이와 달리 다시 펼쳐볼 수 없다. 평면적이던 한때를 떠올릴 수는 있지만, 굳은 상태에서는 상상에 그친다. 마치 지층을 들여다보듯 우리는 그 주름에 퇴적된 시간을 상상한다. 작품을 보는 사람은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같이 보여주는 지층처럼, 지금 보고 느끼는 것 너머에, 이어져 있는 시간들이 있다.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이 땅 위에서 있다는 것은 그 아래 수많은 퇴적과 침식, 그리고 상실과 생성의 과정을 토대 삼는다. 과거는, 쌓이거나 사라져버렸던 간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똑 잘라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물의 흔적을 보고 나나 타자를 대입해서 생각하듯 가라앉거나 접힌 흔적 너머 시선을 보낼 때 비로소 지금의 나 또한 소생하는 것이 아닐까. 이은영이 흙을 다루어 기억을 도자로 빚어낼 때, 작품은 형태 잡힌 물성 너머에 펼쳐질 상상과 기억으로 이끌어준다.

글 콘노 유키(Yuki Konno)



1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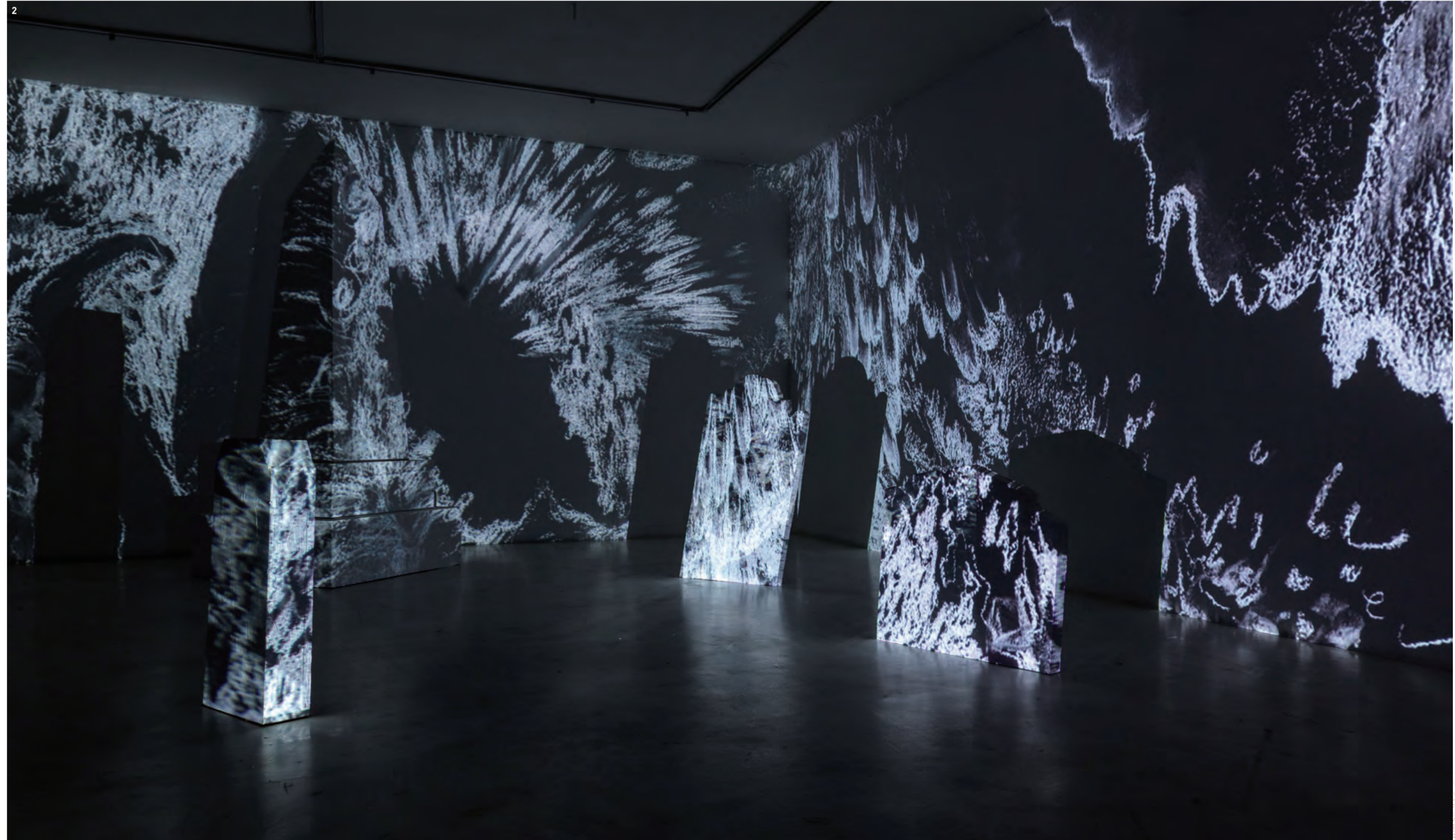


5



6

1 이은영, '유령의 나이(detail), 2023, ©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and the Artist. All rights reserved.
 2 이은영, '빛은 돌들 사이에서 기다린다', 2018, 영상 설치. Courtesy of the artist, 인사미술공간 3 이은영, '꺾어진 나뭇가지에서 복사꽃이 피었다', 2024, Transfer printing on ceramic, 23(w)×36(h)cm, Courtesy of the artist, 봄화랑
 4 이은영, '목욕 후 바나나 우유', 2024, Ceramic, 35×55.5×6.5cm, Courtesy of the artist, 콤플렉스, Photo by 양이연 5 이은영, '고요한 섬', 2024, 도자와 수집된 돌, 33.3×24.5×15.4cm, Courtesy of the artist, 봄화랑
 6 이은영, '들어가면 넘치는 물', 2024, Ceramic, 28×50×8.2cm, Courtesy of the artist, 콤플렉스



2

〈백남준, 백남준, 그리고 백남준〉展
부산현대미술관



우리는 열린 회로

전 세계 미술계에서 빈번히 회자되는 유명한 이름이지만 거듭 파고들어도 무궁무진한 매력의 보고 같은 불세출의 예술가 백남준(1932~2006). 부산을 속도에 자리한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역대급을 표방하는 백남준 회고전인 〈백남준, 백남준, 그리고 백남준〉展(2024. 11. 30~2025. 3. 16)'이 펼쳐지고 있다. 백남준아트센터 소장품을 중심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울산시립미술관,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 등에서 대어한 작품과 사진, 영상 등 1백60여 점을 선보이는 전시다. 강승완 부산현대미술관장은 "백남준 소장품이 한 점도 없는 미술관에서 백남준 전시를 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시도"였으나, "백남준 사후 국내 미술관급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회고전"이라고 강조했다. 생각보다 열악한 미술관 생태계의 상황과 더불어 백남준에 대한 한국 미술관의 관심과 지원 수준이 새삼 아프게 다가오는 언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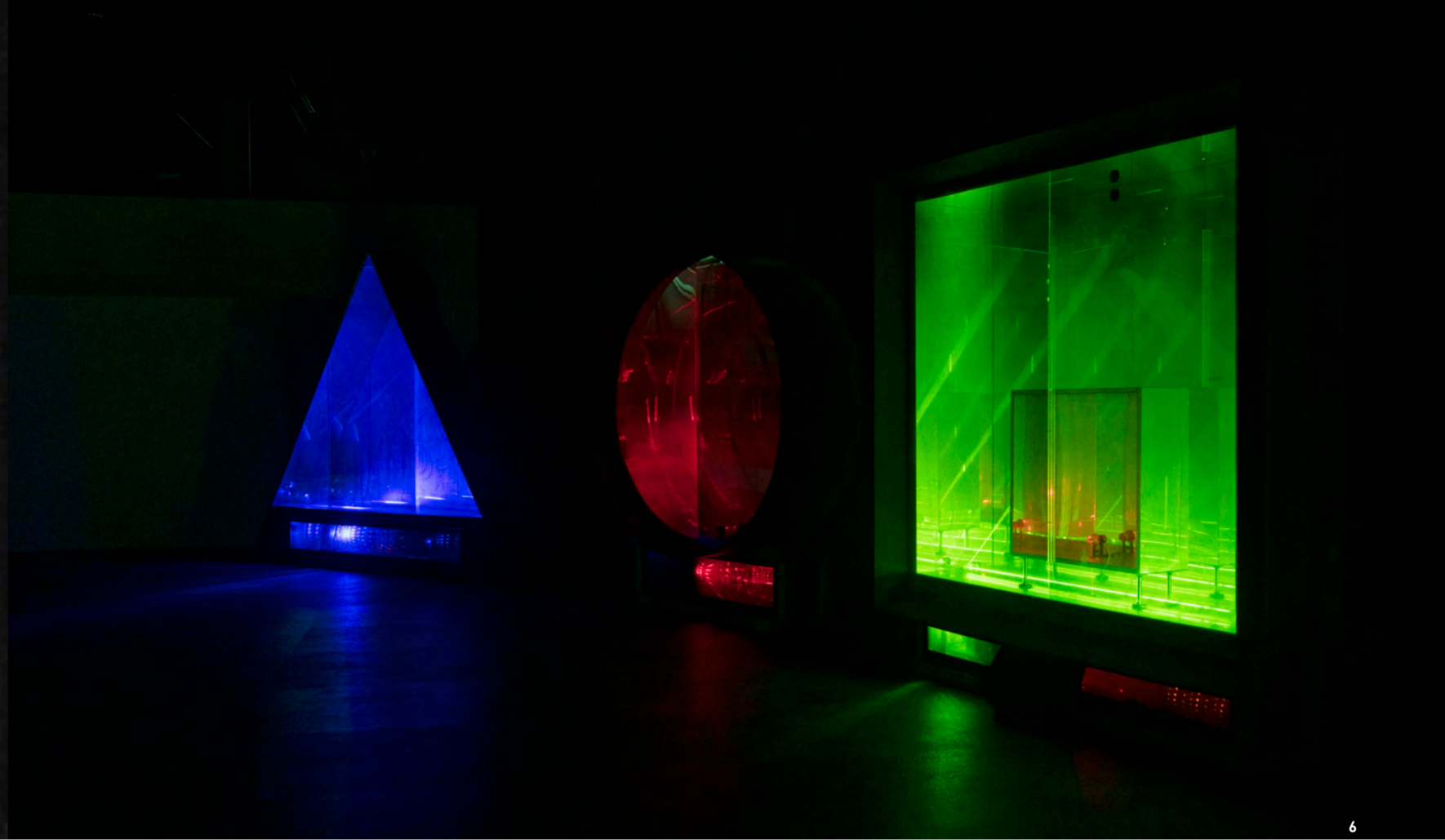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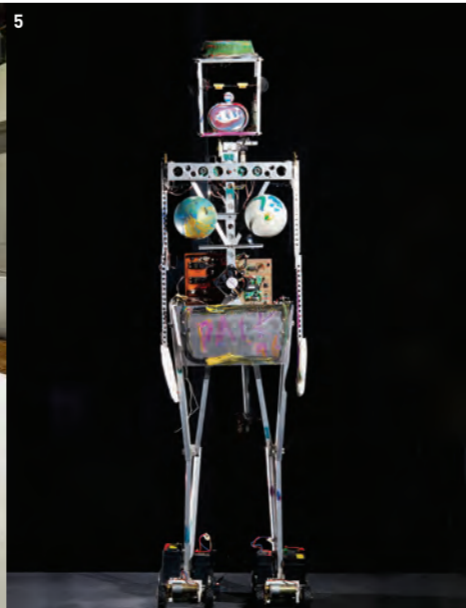
1 〈백남준, 백남준, 그리고 백남준〉(2024. 11. 30~2025. 3. 16) 전시가 진행 중인 부산현대미술관의 모습. Photo by 고성연 2 백남준, '손과 얼굴', 1961, 비디오, 흑백, 무성, 1분 42초, 백남준아트센터 비디오 아카이브 ©백남준 에스태이트 3 '달은 가장 오래된 TV' 작품을 배경으로 TV 부처를 연출한 장면. 4 '절리바(알)와 케이지의 숲-숲의 게시(뒤) 설치 모습. 5 백남준 '로봇 K-456', 1964(1996), PCB, 서보모터, 센서, 스피커, 엠프, 배터리, 원격 조종기, 맨, 철 구조물, 185×70×55cm,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백남준 에스태이트 6 백남준, '삼원소', 1999, 레이저 1개, 나무 틀, 거울, 빈투명 플라스틱, 광학계, 프리즘 2개, 모터 2개, 모터 전원 공급 장치, 연무기,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백남준 에스태이트 * 2-6 이미지 제공, 부산현대미술관

자화상에서 자서전으로

〈백남준, 백남준, 그리고 백남준〉展은 백남준의 '자화상(비디오)에서 시작해 '자서전(수필)으로 끝난다. 부산현대미술관 전시장에 들어서면, 까까머리 청년 백남준이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는 영상 '손과 얼굴(1961)'이 관람객을 먼저 맞이해준다. 화가들이 흔히 자신을 모델로 삼듯, 백남준 역시 스스로의 모습을 영상의 주체로 설정했다. 이 영상은 '무성'이다. 백남준이 음악적 요소와 소리를 중시했음에도 이 작품에서는 어떤 노래나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 이 침묵은 낯설고 두려운 느낌을 준다. 백남준은 언어적 한계를 직접 경험한 예술가다. 그는 한국어를 잃어버린 시대(일제강점기)에 태어났고, 독일에서도 언어의 어려움을 겪었다. 6개의 외국어를 구사했지만, 특유의 어눌한 억양과 함축적이고 중의적인 표현 탓에 외국인들은 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남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명제처럼, 언어는 세계와 존재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도구인 동시에, 사고와 경험을 제약하는 감옥이기도 하다. 백남준의 예술은 이러한 언어적 한계와 이중성을 통찰하며, 그것을 초월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전시장을 나서며 관람객은 벽면 가득 쓰인 백남준의 '자서전을 읽게 된다. 그는 양력으로는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한 1932년 7월 20일에 태어났다고 기술했으며, 음력으로는 '동독의 스탈린에 대항하는 봉기일인 6월 17일에 태어났다고 기록했다. 그는 7월 20일을 선호했는데, 독일 국민이 히틀러에게 저항한 날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데올로기, 편견, 선입관에 끊임없이 저항해온 예술가였던 그의 자서전(1965)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된다.

11932년에 내가 여전히 살아 있다면 나는 십만 살이 될 것이다.

평생 중도의 미를 거부하며 극과 극을 오갔던 백남준다운 영동함이 묻어나는 문장인데, 그는 어째서 굳이 십만 살이라는 황당한 숫자를 언급했을까? 그건 예술가는 미래를 사유하는 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삼원소와 원방각

백남준이 미래를 사유하는 방법 중 하나는 최첨단 기술과 정보를 다루는 동시에 전통과 과거를 참조하는 것이었다. 그의 '삼원소(1999)는 3개의 레이저 작품, '원', '사각형',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한민족 고유 문화 코드인 '원방각(圓方角)'을 상징한다. 제천 문화에서 비롯된 '원(圓, 〇), 방(方, ㄱ), 각(角, △)은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기 훨씬 전에 백남준이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 요소다. (태백일사(太白逸史) 소도경전본훈 제1. 선인 발귀리의 송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원(〇)은 하나—이니 하늘의 무극(無極) 정신을 뜻하고, 방(〇)은 둘—이니 하늘과 대미가 되는 땅의 정신(反極)을 말하고, 각(△)은 셋—이니 천지의 주인인 인간의 '태극(太極) 정신'이로다". 삼원소는 목재 틀에 거울이 달리고 내부에는 레이저 광선이 통과하는 구멍이 있는 프리즘 상자로, 앞면으로는 유리창처럼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 프리즘은 빛을 굴절시키고 분산시켜, 한정된 공간을 무한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독특한 효과를 낸다. 삼원소에서 사용한 색은 빛의 삼원색(RGB)이다. 인간은 세 가지 유형의 원뿔세포(cone cell)를 지니고 있으며, 각각 빨강(red), 초록(green), 파랑(blue)의 빛의 파장을 감지한다. 이러한 색상 감지 메커니즘을 통해 인간은 약 1백만에서 1천만 가지 색상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각적 세계의 근본인 가시광선(visible light)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0.0035%에 불과하며, 음향 스펙트럼에서 인간의 가청 주파수(audible range, 20Hz~20kHz)는 0.000001%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인간은 극히 제한된 범위만 보고 듣고 사유하는 존재다. 이쯤에서 백남준이 남긴 많은 명언 가운데 특히 자주 회자되는 "예술은 사기다"라는 말에 대해 고민해보자.

내가 아는 것은 모른다는 것뿐이다 - 소크라테스
상태 그 자체로(Zu den Sachen Selbst) - 에드문트 후설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 리처드 파인먼
예술은 사기다 - 백남준

혹시 이 인용문의 공통분모를 눈치챘는가? 인간의 한계를 깊이 인식한 이들이 자신들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언급을 했다는 점이다. 다시 태어나면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던 백남준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인식은 사기와도 같다. 그러므로 이 한계를 의심하지 않고, 보고 듣는 것을 신뢰하며, 이를 예술로 그럴듯하게 재현하는 것은 일종의 '자발적 사기'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조금이라도 뛰어넘기 위해 백남준은 '중도의 미를 포기하고, 극과 극을 오가는 방식으로 예술적 탐구를 이어갔다.

사이버네틱화된 예술

$$\int_{t=you}^{me} (\text{cybernated art} dt - \text{art for cybernated life} = \frac{3}{\infty})$$

$$\int_{t=you}^{me} (\text{cybernated art}) dt$$

[좌] Nam June Paik: Electronic Art: [catalogue of an Exhibition] New York, Galeria Borino, 23rd November - 11th December, 1965 [우] [좌]의 첫 수식 부분의 일부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는 노버트 위너(Norbert Wiener)에 의해 창립된 이론으로 인간, 기계, 그리고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과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 닫힌 회로(closed circuit)를 통해 제어와 소통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반면 백남준은 '사이버네틱화된 예술(cybernated art)'을 통해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탐구하며,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열린 회로를 통해 사회적 연결성과 미래 가능성을 표현한 비디오아트를 주창했다.

백남준이 작업에 사용한 간단한 수학적 기호는 그의 철학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좌]에서 볼 때 부분의 상한인 'me(나)'는 백남준 자신을 가리키며, 예술 창작의 주체를 상징한다. 하한인 't=you'는 관객(you), 타자, 혹은 세상으로, 시간(t)이라는 흐름 속에서 예술가와 관객이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나타낸다. 적분(∫)은 관객과 예술가 사이에서 예술적 경험이 시간이 지나며 축적되고 발전하는 과정이다. 피적분 함수인 '사이버네틱화된 예술'은 기술과 인간, 혹은 기계와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탄생하는 예술과 '사이버네틱화된 예술'의 총합을 계산한다. 백남준은 이러한 예술 철학을 통해 예술은 완결된 결과물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변화하고 관객의 참여로 완성되는 '과정적 예술'임을 말한다. 지면의 제약으로 이 글에서는 가장 알 수 시 하나만 해석을 시도했다. 백남준의 수식은 관객에게 상상의 여지를 제공하며, 풀이하는 과정에서 독창적인 해석의 재미를 선사하므로, 이어서 해석해보길 강력히 권한다.

불교도들은 또한 말한다(The Buddhists also say)
업은 윤회(삼사라)라(Karma is samsara)
관계는 환생이다(Relationship is metempsychosis)
우리는 열린 회로 안에 있다(We are in open circuits)

백남준은 '사이버네틱화된 예술(Cybernated Arts)'이라는 글을 '우리는 열린 회로 안에 있다'라는 문장으로 마친다(Manifestos, a Great Bear Pamphlets, New York: Something Else Press, 1966 참고). 그가 말한 '열린 회로'는 단순한 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정형화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시스템을 상징한다. 글자의 배치 역시 열린 사고와 비형식적 연결성을 암시한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듯, 개념이 점진적으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흐름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글자의 배치는 백남준의 철학적, 예술적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전달한다(이는 불교적 개념인 업과 윤회, 관계와 환생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는 '열린 회로' 개념을 통해 단순히 외부 환경을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새로운 창조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간과 기술, 예술, 그리고 사회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백남준의 철학적 관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기술 발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그의 철학은 단지 과거의 유산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직면한 기술적, 사회적, 예술적 도전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데도 빛을 발한다. 수많은 화두와 수식으로 점철된 그의 작업과 사유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하며, 새로운 가능성과 연결의 방식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백남준의 유산은 우리의 열린 회로 안에서 계속 진화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수식인가! 글 심은록(시영화감독, 미술비평가) Edited by 고성연



1

빌 비올라, 새로운 게임의 규칙

비디오아트 창시자 백남준과 그의 수제자로 꼽히는 빌 비올라(Bill Viola)의 전시가 현재 한국에서 동시에 열려 의미를 더하고 있다. 부산현대미술관에서는 <백남준, 백남준, 그리고 백남준>展(2024. 11. 30~2025. 3. 16)이, 서울 삼청동 국제갤러리에서는 빌 비올라의 개인전 <Moving Stillness>(2024. 12. 3~2025. 1. 26)가 펼쳐지고 있다. 또 부산현대미술관의 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하는 연례전인 <2024 부산모카플랫폼 - 미안해요 데이브: 유감이지만 난 그럴 수 없어요>(2024. 11. 30~2025. 4. 13)에서는 빌 비올라의 흥미로운 아트 게임 'The Night Journey'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모국인 미국에서 타계한 빌 비올라는 미디어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공간적 세계를 구축해 비디오아트의 새 지평을 연 거장이다. 이 글에서는 국제갤러리에 전시된 'Poem B (The Guest House)'와 'Interval', 그리고 부산현대미술관의 'The Night Journey'를 통해 그의 시공간을 탐험해본다.

2



여백의 울림을 품은 'Poem B'와 평행 이미지의 세계로 안내하는 'Interval'

국제갤러리 K1의 전시실 한 벽면에 3대의 평면 모니터가 나란히 걸려 있다. 마치 삼면화의 비디오 버전 같은 빌 비올라의 'Poem B (The Guest House)'(2006)라는 작품이다. 모니터 간의 간격을 조금 더 넓게 배치했다면, 각각이 독립된 작품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상이 진행되면서 관객은 중앙 화면에 등장하는 한 여성이 그녀의 좌우 화면에서 상영되는 추억을 떠올리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객은 마치 그녀의 뇌 속으로 들어가 그녀의 기억과 감정을 함께 경험하는 듯한 고통과 공감을 느낀다.

모니터와 그 사이 간격은 마치 시구(詩句)와 자간(字間)처럼 여백의 울림과 정서를 전달한다. 그러나 이 3개의 채널이 서로 완전히 별개의 주제를 다룰 가능성도 있다. 어쩌면 우리의 두뇌가 각 화면 사이 연관성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다. 반대로 실제 우리 삶에서도 우리와 무관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간파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만든다. 이 작업은 우리의 인지 과정을 의심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리고 이는 자간이 선사하는 시적 여백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3



4



5

어두운 공간에 2개의 대형 프로젝트이 서로 마주 보는 벽에 설치되어 있다. 왼쪽 화면에는 나체의 남성이 샤워실 안에서 타월로 천천히 몸을 씻는 모습이 비춰진다. 오른쪽 화면에는 불과 물의 이미지와 신체를 클로즈업한 장면이 빠르게 교차하며 전개된다. 이 두 영상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주제, 속도, 소리, 색감, 톤, 에너지 등 모든 면에서 극명하게 대비된다. 두 화면은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이 꺼지고, 전자가 꺼지면 후자가 켜지는 방식으로 번갈아가며 상영된다. 이러한 '인터벌(interval)'은 처음에는 길게 유지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짧아져 마침내 두 영상이 하나의 입체적이고 통합된 장면처럼 융합된다. 소리와 에너지가 점차 혼합되며, 관객은 마치 이 영상의 일부가 된 듯 강렬한 몰입감을 경험한다.

'인터벌'이라는 리듬적 요소로 처음에는 대조적으로 보였던 두 영상이 관객과 점차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은 강렬한 감각적 전이를 선사한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블랙아웃과 함께 모든 것이 어둠에 잠기면서, 관객은 예상치 못한 일체감에 놀라고, 독립적 존재로서의 현실로 쉽게 돌아오지 못한다. 빌 비올라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평행 이미지(parallel imagery)의 세계를 탐구하게 한다. 서로 대조되는 요소가 결국 하나의 전체로 연결될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하며, 관객에게 대립과 통합의 경계를 넘어선 독특한 감각적 체험을 제공한다.



1 빌 비올라(Bill Viola, 1951~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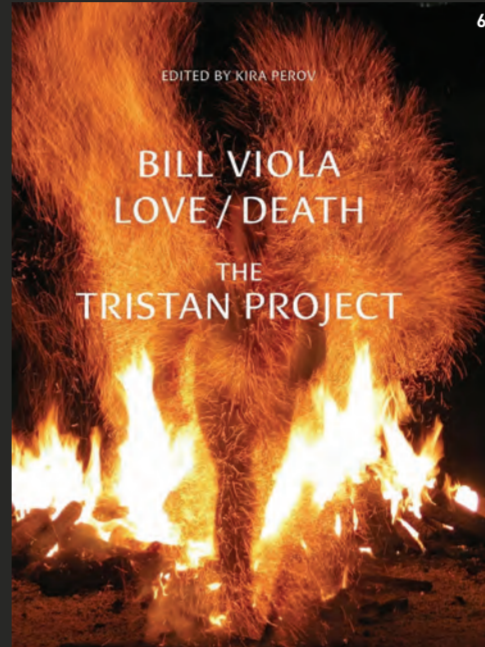
Courtesy of Yorkshire Sculpture Park, UK. Photo by Jonty Wilde. 이미지 제공_국제갤러리

2 빌 비올라, 'Poem B(The Guest House)', 2006. Color and black-and-white video triptych, 20:38 minutes, Courtesy of Bill Viola Studio, Photo by Peter Mallet. 이미지 제공_국제갤러리 3, 4 빌 비올라, 'Interval'(detail), 1995. Video/sound installation, 29:00 minutes, Courtesy of Bill Viola Studio, Photo by Kira Perov. © Bill Viola Studio. 이미지 제공_IMDB. 국제갤러리 5 국제갤러리 K1

1층에서 진행 중인 빌 비올라 개인전 <Moving Stillness>(2024. 12. 3~2025. 1. 26) 설치 모습. 이미지 제공_국제갤러리 6 사랑과 죽음의 서사를 비디오아트로 재해석한 빌 비올라의 미디어 아트

북. <Bill Viola: Love/Death - The Tristan Project>, 2024 by Peter Sellers (Author), Mark Swed (Author), Gerard Mortier (Author), Esa-Pekka Salonen (Author), Bill Viola (Author), Kira Perov (Editor) 7, 8 빌 비올라, 'The Night Journey', 2007~2018. Courtesy Bill Viola Studio and USC Game Innovation Lab. 이미지 제공_IMDB. 부산현대미술관

1층에서 진행 중인 빌 비올라 개인전 <Moving Stillness>(2024. 12. 3~2025. 1. 26) 설치 모습. 이미지 제공_국제갤러리 6 사랑과 죽음의 서사를 비디오아트로 재해석한 빌 비올라의 미디어 아트 북. <Bill Viola: Love/Death - The Tristan Project>, 2024 by Peter Sellers (Author), Mark Swed (Author), Gerard Mortier (Author), Esa-Pekka Salonen (Author), Bill Viola (Author), Kira Perov (Editor) 7, 8 빌 비올라, 'The Night Journey', 2007~2018. Courtesy Bill Viola Studio and USC Game Innovation Lab. 이미지 제공_IMDB. 부산현대미술관



혁신적 총체 예술, 트리스탄 프로젝트

감성의 폭풍을 온몸으로 맞고 싶을 때,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의 오페라만큼 적절한 음악은 드물다. 인간의 희로애락을 넘어선 깊은 모멸감부터 숭고함과 신성함에 이르는 극단적 감정의 팔레트를 담고 있어서다. 이러한 감정의 역동적 스펙트럼은 빌 비올라의 '트리스탄 프로젝트(The Tristan Project)'에서 시각적으로 구현되었다.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Tristan und Isolde)>를 위해 제작한 작품으로, 음악과 공연 예술에 비디오아트를 결합한 실험성 돋보이는 총체 예술로 오페라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긴 프로젝트다(200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초연되었고, 이후 파리, 마드리드, 도쿄, 스톡홀름 등지에서 콘서트 버전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다). '트리스탄의 승천(Tristan's Ascension)'과 '불의 여인(The Descent of the Flames)'은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메인 캐릭터의 특징, 사랑과 죽음, 세속과 초월이라는 주제를 시각적으로 재현해낸다. '트리스탄의 승천'은 고초를 겪은 육신이 물리적 죽음을 넘어 빛의 세계로 승천하는 과정을 슬로모션으로 보여준다. 천사나 신적 존재는 등장하지 않으며, 오직 물과 빛만으로 영혼의 숭고한 상승과 초월을 표현한다. 이를 바라보는 관객은 마치 자신이 함께 떠오르는 듯한 경험을 하며, 무의식적으로 발에 힘을 주어 버티게 된다. 반대로 '불의 여인'은 불길 속에서 여성이 '액체화된 불' 같은 몸속으로 몸을 던지는 모습을 그린다. 평론가들은 이를 정화와 부활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바그너다운 해석은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을 진압하기 위해 스스로를 불 속으로 던진다는 것이다. 바그너의 세계관은 썩 꺼거기를 남기는 불연소를 용납하지 않기에, 여자를 남기지 않고 감정의 극단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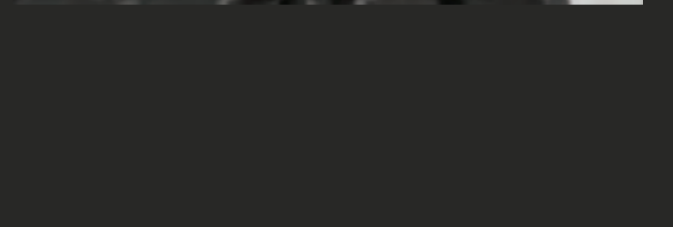
빠른 속도감이 우선되는 이 시대에, 빌 비올라는 역설적으로 고속 촬영을 활용한 슬로모션 기법을 통해 시간을 정밀히 탐구한다. 때로는 영상이 정지된 것처럼 보일 만큼 느리게 움직이지만, 이 느린 시간 속에서 관객은 마치 시간의 흐름을 손으로 만지는 듯한 체험을 하게 된다.

The Night Journey: 깨달음의 게임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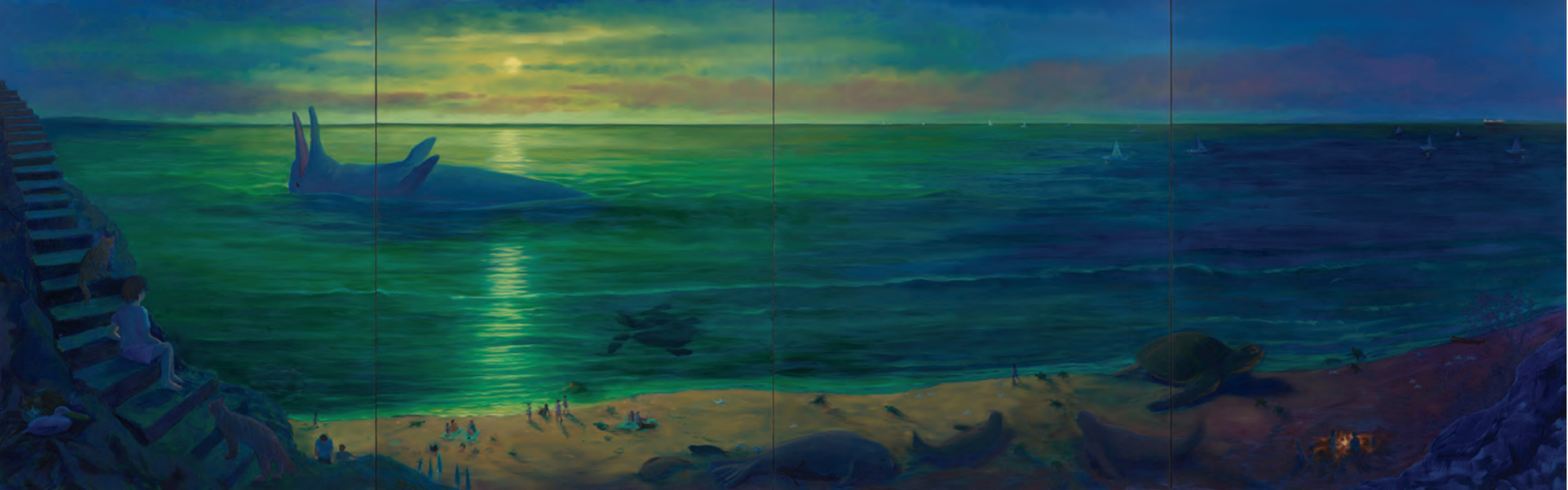
'The Night Journey'는 빌 비올라와 USC 게임 개발 연구소(Game Innovation Lab)의 협업으로 탄생한 실험적 게임으로, 2009년 최초로 공개된 이후 현대 아트 게임의 선구적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게임은 "깨달음의 게임 메커니즘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에서 출발한다(https://www.thenightjourney.com). 저해상도의 흑백 팔레트, 느린 진행 속도, 오래된 필름에서 영감받은 크래클링 효과(crackling effect) 등으로 현대 게임의 화려한 그래픽과 빠른 속도와는 극명히 대조를 이룬다. 게임은 시작부터 명확한 목표나 내러티브를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어둠이 깔린 평야를 탐험하며 플레이어가 스스로 방향을 정하도록 유도한다. 고정된 목표나 정해진 경로가 없는 '열린 구조로, 전통적인 보상 중심의 게임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렇듯 'The Night Journey'는 게임의 원리와 규칙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접근법을 제시했다. 또 게임 내 통합된 텍스트는 불교 선종, 이슬람 수피교, 기독교 신비주의를 배경으로 인간 정신과 감성의 깊이를 탐구한 작가의 이력을 반영하듯 역사적 사상가들의 철학과 사유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13세기의 이슬람 시인이자 신비주의자 루미(Rumi), 18세기의 불교 시인 료칸(Ryōkan), 16세기의 스페인 신비주의자이자 시인 십자가의 요한(S. John of the Cross), 그리고 3세기 그리스 철학자 플로티노스(Plotinus) 등이다). 게임이라는 매체가 단순히 오락을 넘어, 철학적 탐구와 명상적 경험의 도구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술관에서 게임이 예술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은 지는 오래되었다. 이제는 이를 '게임 기반 아트(game-based art)'와 '아트 기반 게임(art-based game)'으로 구분해 각각의 특성과 의도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게임 기반 아트는 기존 게임의 구조를 해체하고 변형해 새로운 예술적 맥락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반면 아트 기반 게임은 처음부터 예술적 경험을 목표로 설계되며, 플레이어가 주제적으로 내러티브를 창조하고 심미적, 철학적 탐구에 몰입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인간의 감각과 사고를 확장시키는 매체로 작동하며, 바로 'The Night Journey'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빌 비올라는 'The Night Journey'를 통해 현실에서의 '진리 게임의 원칙과 규칙을 새롭게 탐구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진리 게임을 통해 권력과 주체가 어떻게 설정되고 작동하는지' 분석했는데, 이와 달리 빌 비올라는 미술 게임을 통해 주어진 시공간 안에서 현실과 인식이 어떻게 규정되고 선택되는지 모색했다. 작가는 고인이 되었지만 그의 작업은 여전히 기술 중심의 미디어를 숭고한 예술로 승화시키고, 게임을 명상 도구로 변모시켜 미디어 아트의 경계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객은 예술을 경험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며, 그의 스승 백남준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 존재와 기술의 관계를 성찰하게 한다. 글 **심은택**(시영회감독, 미술비평가)



Exhibition in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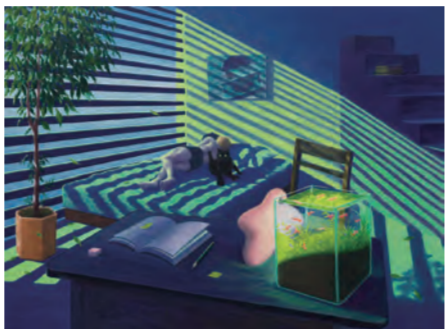


최민영, '밤 수영', 2024, Oil on linen, 220×680cm, Photo by Peter Mallet, 이미지 제공_스페이스K

꿈을 담은 몽환의 풍경 #최민영, <꿈을 빌려드립니다>展 스페이스K

한강을 유영하는 아마존강돌고래, 낮과 밤이 동시에 공존하는 들뜬에서 차를 마시는 사람들, 꿈속에서 본 듯한 침실 풍경. 스페이스K 서울에서 열리는 최민영(Minyoung Choi, b. 1989) 개인전 <꿈을 빌려드립니다>는 현실과 비현실, 기억과 상상이 얽힌 몽환적 서사로 초대한다. 신작 회화 16점을 포함해 드로잉, 회화 등 30여 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공간 연출에도 세심하게 신경 썼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흰 벽이 점차 짙은 청록색으로 변하는데, 이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구성된 3개의 공간을 거닐며 서서히 무의식의 세계로 향한다는 상징적 연출이다. 최민영은 일상적 풍경에 섬세한 상상의 길을 더해 독창적인 장면을 그려낸다. 전시 제목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단편소설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 소설의 핵심 기법인 마술적 사실주의는 현실의 틀에 비현실적 요소를 녹여내는 서사 방식으로, 최민영의 작업 방식과도 맞닿아 있다. 소설 속 꿈을 빌려주는 한 여자의 이야기처럼 그는 관객이 자신의 꿈 일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가상의 세계를 직조해낸다.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작가는 미국, 일본, 한국을 거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고, 이 과정에서 감명받은 색채와 공간의 인상이 작품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그는 "제가 사용하는 색은 단순히 눈앞의 현실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느낀 감정과 기억을 기반으로 합니다"라고 설명한다. 작품 전반적으로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돋보인다. 낮과 밤의 구분이 흐려진 초원을 그린 '해 달 차', 블라인드의 줄 무늬를 따라 비치는 빛이 공간을 감싼 '침실' 같은 작품이 그 예다. 일상에서 포착한 빛의 순간들이 화면 속에서 마법처럼 어우러지며, 뚜렷한 명암 대비는 장면에 입체감을 더한다. 작품 속 동물들 또한 중요한 메타포 역할을 한다. 물고기, 불가사리, 올빼미 등은 현실과 꿈을 잇는 존재로 등장한다. 특히 4개의 캔버스를 이어 붙인 대표작 '밤 수영'에서는 고풍한 밤바다를 배경으로 아마존에 서식하는 강돌고래가 등장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작가는 수면 위와 아래의 경계를 넘나드는 돌고래를 통해서도 다른 두 세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 일상에서도 꿈같은 순간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는 현실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한다고 덧붙인다. 어린 시절 반려동물과의 교감, 한강 나들이와 해수욕장에서의 추억 등 친숙한 장면을 마주한 관객은 자신의 기억과 맞닿은 새로운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다.

전시명 <꿈을 빌려드립니다> 전시 기간 2월 23일까지 전시 장소 스페이스K 홈페이지 space.co.kr



최민영, '침실', 2023, Oil on linen, 160×210cm, Photo by JunHo Lee, 이미지 제공_스페이스K



최민영, '해 달 차', 2024, Oil on linen, 150×200cm, Photo by Peter Mallet, 이미지 제공_스페이스K

기억의 편린을 모아 자신만의 고유한 예술 세계를 구축한 2개의 전시를 소개한다. 유년 시절의 추억을 바탕으로 꿈같은 풍경을 그려내는 최민영 작가의 개인전(스페이스K 서울)과 생사의 경계에서 겪은 감정과 트라우마를 화려한 색채로 변주한 일본 팝 아티스트 케이이치 타나아미(Keiichi Tanaami)의 개인전(대림미술관)이다. 한 명은 차분하고 은유적인 서사로, 다른 한 명은 강렬하고 과감한 시각적 언어로 펼쳐낸 '기억의 콜라주'로 당신을 초대한다.

기억과 환영의 유토피아 #케이이치 타나아미, <Keiichi Tanaami: I'M THE ORIGIN>展 대림미술관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한 색채와 대담한 상상력. 서울 대림미술관에서 열리는 <Keiichi Tanaami: I'M THE ORIGIN>은 아시아 팝아트의 선구자로 불리는 케이이치 타나아미(1936~2024)의 예술 세계를 집대성한 전시다. 전후 문화, 대중 매체, 기억과 꿈, 죽음과 낙원 등 작가가 평생 탐구한 주제를 바탕으로 그의 예술관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지난여름 일본 도쿄의 국립 신미술관(NACT)에서 회고전이 열린 지 이틀 만에 착고한 그의 60여 년 창작 여정을 담은 작품 7백여 점을 전시하며 회화, 드로잉, 조각, 애니메이션, 설치 작업 등 다양한 매체로 확장된 방대한 작업 세계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다. 많은 작품을 선보이는 만큼 대림미술관 본관뿐 아니라 바로 옆 공간 '미술관옆집'까지 전시 무대를 확장했다. 케이이치 타나아미의 작품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기억의 파편을 끌어와 실험적 서사를 만드는 힘이다. 화려한 색과 비현실적 이미지로 가득하지만, 그 바탕에는 복합적인 내면의 기억이 자리한다. 무엇보다 어린 시절 겪은 전쟁에 대한 기억이 작업 전반에 짙게 깔려 있다. 도쿄 대공습 당시, 폭격기의 섬광이 할아버지의 금붕어 어항에 비치던 장면이 그에게 평생 잊히지 않는 이미지로 남았다고 한다. 이 기억은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금붕어, 두개골, 전투기, 뱀뱀 등의 상징으로 이어져 죽음과 생명, 파괴와 재생의 이미지를 함축한다. 1990년대 중반엔 작가가 기억을 시각화하는 드로잉 작업에 몰두한 시기다. 매일 저녁 낮은 식탁에 앉아 묻어둔 과거의 기억을 작품으로 남겼다. 이 과정에 대해 그는 영화 <백 투 더 퓨처>의 한 장면처럼 시간 속으로 미끄러지는 경험을 했다고 회고한다. 기억을 그림으로 남기고, 뒷면에 감정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쌓아 올린 무수한 드로잉은 훗날 그의 회화와 판화에 중요한 창작 자산이 되었다. 1981년에 겪은 결핵 투병 또한 그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생사의 기로에서 마주한 환각과 불안은 창작의 원천이 되었다. 이 시기에 탄생한 '생명 탄생'과 '엘리펀트 맨' 시리즈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시각화한 대표작으로 꼽힌다. 팬데믹 기간에는 '피카소 모자상의 즐거움' 시리즈를 통해 고품과 불안 속에서도 창작을 멈추지 않는 열정을 보여줬다. 케이이치 타나아미는 흩어진 기억의 편린을 조합해 독특한 이미지를 구현한다. 그의 예술 세계는 과거와 현재, 삶과 죽음, 현실과 비현실이 교차하는 거대한 기억의 저장고와도 같다. 특히 온실 안에 작가의 꿈 일기와 스크램블을 담아놓은 설치 작업물 '기억의 재구축'은 끊임없이 재조합되고 진화하는 기억의 속성을 암시한다. 그곳에 시공간이 중첩된 그만의 유토피아가 펼쳐진다.

전시명 <Keiichi Tanaami: I'M THE ORIGIN> 전시 기간 2월 29일까지 전시 장소 대림미술관 홈페이지 daelimuseum.org 김 경주(객원 에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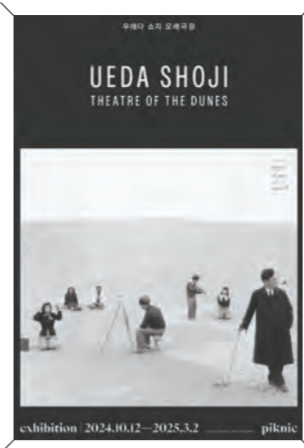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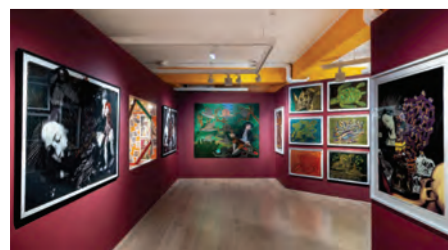
<Keiichi Tanaami: I'M THE ORIGIN> 공식 포스터, 이미지 제공_대림미술관



<Keiichi Tanaami: I'M THE ORIGIN>, CREATIVE ILLNESS, 2024, Courtesy of DAELIM MUSEUM, 이미지 제공_대림미술관



<Keiichi Tanaami: I'M THE ORIGIN>, CREATIVE ILLNESS, 2024, Courtesy of DAELIM MUSEUM, 이미지 제공_대림미술관



이미지 제공, 피크닉

▲ 피크닉 <우에다 쇼지 모래극장> 일본의 사진 거장 우에다 쇼지의 작업 세계를 아우르는 국내 첫 회고전. 고풍한 모래언덕 위에 선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정적의 순간, 그 특별한 장면이 전시의 서막을 연다. 초기 습작부터 '모래언덕' 연작, 어린이 초상, 후기 컬러 사진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대표작을 오리지널 프린트로 공개한다. 소소한 일상 속 아름다움을 담아낸 그의 작품 중에서도 세련된 연출이 돋보이는 '모래언덕' 연작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전시 기간 3월 2일까지 문의 piknic.kr



Martin Boyce, 'The Weight of the Tides', 2024, Painted steel, Painted aluminum, Brass wire. 이미지 제공_갤러리 에바 프렌츨후버

▲ 갤러리 에바 프렌츨후버 x P21 마틴 보이스 개인전 <Celestial Snowdrops> 미니멀리즘을 바탕으로 한 설치 작품부터 서정적인 조형 작업까지, 일상의 형태를 정제된 미학으로 재해석한 마틴 보이스의 전시가 갤러리 에바 프렌츨후버 x P21에서 진행 중이다. 전시는 천정에 설치된 모빌 작업 'The Weight of the Tides'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보이스는 이 모빌을 꿈과 기억에 비유하는데, 떨어져 있는 조각들이 안전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지만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꿈속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전시 기간 1월 25일까지 문의 cnicomms.com



이미지 제공, 화이트 큐브

▲ 화이트 큐브 서울 톤지 아테니-존스 개인전 <무아경> 2024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설치 작품 '천상의 모암'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톤지 아테니-존스가 화이트 큐브 서울에서 개인전을 연다. 나이지리아 태생의 영국 작가인 그는 오투바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강렬한 색감과 독특한 인물화로 알려져 있으며, 서아프리카 고대사와 그 지역 고유의 현대미술 담론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번 전시는 구부러진 신체와 실루엣과 입사거로 뒤덮인 추상적 배경이 교차하는 회화 신작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전시 기간 1월 10일~2월 22일 문의 whitecub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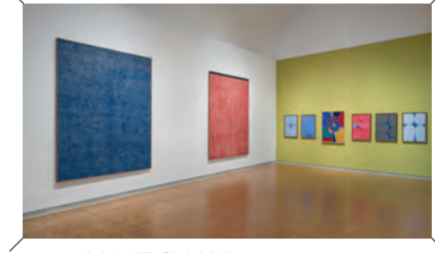
Remember the EXHIBITION

여지없이 새해가 밝았다. 저마다의 사정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영감을 갈구한다. 무더진 감각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이 바로 예술의 존재 이유 아닐까. 지난한 세계에 맞서 투쟁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이들의 작품은 조용한 위로와 희망을 동시에 건넨다. 디지털 시대를 날카롭게 풍자한 Mak2의 상상력부터 우에다 쇼지가 사진 속에 숨겨둔 기쁨의 순간까지. 다채로운 전시를 계기로 반짝이는 영감을 다시 한번 채워보자.



와엘 사키, '나는 새로운 신전의 천가', 2023, 단채널 4k 비디오, 컬러, 사운드, 55분. 이미지 제공_대구미술관

▲ 대구미술관 <와엘 사키> 이집트 출신 작가 와엘 사키의 국내 첫 미술관 개인전. 지난해 베니스 비엔날레 이집트 국가관 참여로 명성이 더욱 높아진 작가는 영화, 퍼포먼스, 드로잉,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허구와 현실의 경계를 탐구하고 역사와 신화를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작 영상 3점과 조각, 설치 등 70여 점의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한국, 이집트, 고대 도시 폼페이의 문화와 신화를 바탕으로 한 서사를 공통 주제로 다루며, 이들 문화가 역사적 사건과 전통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고민한다. 전시 기간 2월 23일까지 문의 daeguartmuseum.or.kr



이미지 제공, 흰기미술관

▲ 흰기미술관 <영원한 것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한 것들> 한국 최초의 작가 기념 미술관인 흰기미술관이 대규모 레노베이션을 마치고 김환기의 예술 철학을 담은 특별전을 마련했다. 김환기의 생애 전반에 걸친 예술 여정을 조명하고, 유품을 비롯한 드로잉, 오브제 등 1백30여 점의 작품을 통해 그의 세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전시다. 특히 삼국시대 불두와 조선 후기 백자 같은 애장품도 함께 전시해, 작가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준 예술적 소재와 미적 요소를 엿볼 수 있다. 전시 기간 3월 5일까지 문의 whankimuseum.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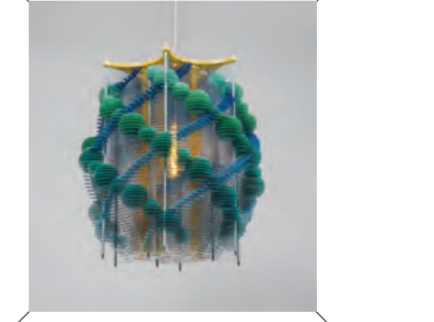
<< 화이트 큐브 서울 톤지 아테니-존스 개인전 <무아경> 2024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설치 작품 '천상의 모암'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톤지 아테니-존스가 화이트 큐브 서울에서 개인전을 연다. 나이지리아 태생의 영국 작가인 그는 오투바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강렬한 색감과 독특한 인물화로 알려져 있으며, 서아프리카 고대사와 그 지역 고유의 현대미술 담론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번 전시는 구부러진 신체와 실루엣과 입사거로 뒤덮인 추상적 배경이 교차하는 회화 신작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전시 기간 1월 10일~2월 22일 문의 whitecube.com

▼ 타데우스 로팍 서울 <꿈의 세계: 회화, 드로잉 그리고 콜라주, 1961 - 1968> 4개의 거대한 캔버스에 수수께끼 같은 이미지들이 펼쳐진다. 타데우스 로팍 서울에서 열린 제임스 로젠퀼스트의 개인전은 1960년대 그의 예술적 전환기를 조명한다. 당대 창작된 기념비적 회화와 비정형 캔버스, 연구작, 스케치, 콜라주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로젠퀼스트는 화면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여성의 경험이 간과되는 현실을 조명하고, 에로티시즘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집어 새로운 시각을 제안한다. 전시 기간 1월 25일까지 문의 ropac.net



제임스 로젠퀼스트, '캠퍼스프링', 1962, 캔버스에 유채, 칠한 나무 틀과 노끈, 91.4×91.4cm(36×36in). 이미지 제공_타데우스 로팍

▼ PKM 갤러리 <Jorge Pardo> 쿠바계 미국 작가 호르헤 파르도는 따뜻한 색감과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공간의 미학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선보여왔다. PKM 갤러리에서 22년 만에 열린 이번 개인전에서는 페인팅, 드로잉, 램프, 가구, 텍스타일 등 작가가 직접 제작하거나 디자인한 신작 20여 점을 전시한다. 파르도의 시그니처 작업인 램프 조각과 월 램프 조각 14점도 포함되어 예술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 기간 1월 11일까지 문의 pkmgallery.com



Jorge Pardo, 'Untitled', 2024, PETG 2mm, Automotive acrylic enamel, birch, and aluminum, 80×80×87(h)cm. 이미지 제공_PKM갤러리



Mak2, '홈 프롬 홈: 와이파이가 내장된 소', 2024, 회화 - 캔버스에 유크와 아크릴릭, 세목화, 100×150cm. 이미지 제공_페레스 프로젝트



이미지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푸른 생명력이 깃든 상형청자가 다시 빛을 발한다. 고려시대 도자 공예의 정수를 담은 상형청자 특별전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고 있다. 국보 11건, 보물 9건을 포함한 대표작과 발골품 등을 한자리에 모은 최대 규모의 상형청자전이다. 기원과 전통, 제작과 소비, 형태와 아름다움, 신장과 예술 등 4개 주제로 구성된 상형청자의 다채로운 면모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기획전시실에서는 오스트리아 레오폴트 미술관 소장품을 선보이는 특별전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도 함께 열린다. 전시 기간 3월 3일까지 문의 museum.go.kr



박진아, '피아노 공장 06', 2024, Oil on linen, 150×170cm, 사진 안현호, 이미지 제공_국제갤러리

▲ 국제갤러리 박진아 개인전 <돌과 연기와 피아노> 박진아의 개인전 <돌과 연기와 피아노>가 국제갤러리 서울점 K2와 한옥 공간을 수놓고 있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 전시장, 레스토랑 주방, 피아노 공장을 배경으로 일상의 장면을 회화로 재구성한 유희와 수채화 등 신작 36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현장에서 촬영한 스냅사진을 바탕으로 순간의 정면을 화폭에 재구성했다. 전시장에는 '관객자 외 출입 금지' 구역의 이면이 펼쳐진다. 작업 중인 아트 행들러, 주방의 조리 과정, 피아노 제작 공정 장면이 담긴 회화들은 일상 속에 숨겨진 역동성을 드러낸다. 전시 기간 1월 26일까지 문의 kujegallery.com

페레스프로젝트 서울 Mak2 개인전 <와이파이가 내장된 소>

홍콩 출신 작가 Mak2의 국내 첫 개인전. 디지털과 현실의 경계를 둘러싼 모호함과 불안감을 다루는 Mak2는 회화를 비롯해 3D 프린팅 조각과 비디오 작업 등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심즈'의 세계를 배경으로 유머러스한 가짜 뉴스 내러티브를 재구성하고 이를 목가적인 풍경에 담아낸 '홈 프롬 홈(Home from Home)' 회화 연작이 주목을 이끈다. 에디션 신작 '와이파이가 내장된 소'는 소를 모티브로 핫스팟으로 변형한 가상의 스토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정보 왜곡을 풍자하며 기발한 상상력을 펼쳐낸다. 전시 기간 2월 15일까지 문의 peresprojects.com



DIOR

LA D MY DIOR
STEEL WITH "CANNAGE" PATTERN